

The First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제1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보고서

October 6th(Wed)-8th(Fri), 2010, Nara, Japan



The First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Nara, Japan

제 1 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목 차

CONTENTS

Documentary Photography / 기록 사진	1
Message / 인사말씀	10
Congratulatory Address / 축사	12
Outline of Program / 개최 개요	14
Schedule / 스케줄	15
Registered delegation members of participating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 참가지방정부 대표단 명단	16
Summary of Opening Ceremony and Plenary Session / 개회식·전체회의 개요	22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Nara Charter /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나라헌장	24
The First Joint Statement / 제 1 회 공동성명	29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1 / 리저널 리포트 테마 1 개요	32
[1. 안후이성 / 2. 허난성]	33
[3. 산시성 / 4. 양저우시]	34
[5. 니가타시 / 6. 충청남도]	35
[7. 전라남도 / 8. 경주시]	36
[9. 아오모리현 / 10. 야마가타현]	37
[11. 베나레스시 / 12. 옥야카르타특별주]	38
[13. 서산시 / 14. 부여군]	39
[15. 후쿠이현 / 16. 시마네현]	40
[코멘트1 후쿠시마현 / 코멘트2 고치현 / 총괄]	41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2 / 리저널 리포트 테마 2 개요	42
[기조강연]	43
[1. 구마모토현 / 2. 가시하라시]	44
[3. 경상북도 / 4. 나라현]	45
[디스커션]	46
[총괄]	48
Summary of Commemorative Lectures / 설립기념강연회 개요	50
[강연 I]	51
[강연 II]	52

The First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Nara, Japan
第 1 回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 報告書

Issued on January, 2011 / 平成 23 年 1 月 発行
Issued / Nara Prefecture / 編集・発行 奈良県

30 Noborioji-cho Nara, Nara, 630-8501 Japan
Tel : +81-742-22-1101 (Nara Prefecture)
+81-742-27-5822 (Anniversary of Nara Heijyo-kyo Capital Association for Commemorative Events of the 1300th Planning Division)
〒630-8501 奈良県奈良市登大路町 30 番地
電話 : 0742-22-1101 (奈良県代表)
0742-27-5822 (奈良県平城遷都 1300 年記念事業推進局企画課)

Documentary Photography / 記録写真



Group photo (October 7, 2010 on the temple grounds of Kofukuji)
集合写真 (2010年10月7日 興福寺境内にて)



Hotel Nikko Nara ~ Reception
ホテル日航奈良～受付

Documentary Photography / 記録写真

Welcome Party / ウェルカムパーティー



Left : Mr. ISHIHARA, Nobuo, Chairman of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左：東アジア地方政府会合実行委員会委員長 石原信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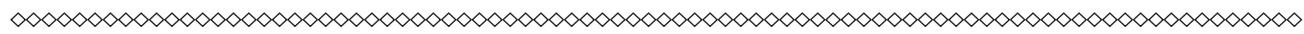


Lower / Presentation of gifts / Toast : Sri Sultan Hamengku Buwono X, Governor, Province of Yogyakarta Special Region and Mr. ARAI, Shogo, Governor, Nara Prefectural Government
下(記念品贈呈・乾杯)：ジョグジャカルタ特別州知事 Sri Sultan Hamengku Buwono X と奈良県知事 荒井正吾

Opening Ceremony ; Plenary Session / 開会式：全体会議



Press Conference / 記者会見



Tour of Kofukuji Temple / 興福寺視察



Documentary Photography / 記録写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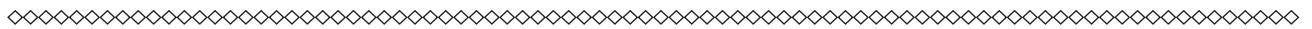
Lunch / 昼食



Regional Report - 1 / リージョナルレポート 1



Regional Report - 2 / リージョナルレポート 2



Commemorative Lectures / 設立記念講演会



Documentary Photography / 記録写真

Governor's Banquet / 知事招宴



H.E. NGUYEN Phu Binh,
Ambassador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大使
グエン・フービン



H.E. CHENG, Yonghua,
Ambassador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華人民共和国大使
程 永華



H.E. Lutfi Muhammad,
Ambassador of Republic of
Indonesia
インドネシア共和国大使
ルトゥフィ・ムハンマド



H.E. SUZUKI, Katsumasa,
Senior Vice Minister,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総務副大臣 鈴木克昌



Mr. KOGA, Nobuaki,
President, 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会長 古賀伸明



Mr. MORISHITA, Shunzo,
Vice Chairman, Kansai
Economic Federation
社団法人関西経済連合会
副会長 森下俊三



H.E. FUYUSHIBA, Tetsuzo, Former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元国土交通大臣 冬柴鐵三



Mr. DEGUCHI, Takeo,
Chairperson, Nara
Prefectural Assembly
奈良県議会議長 出口武男

Commemorative Ceremony of the 1300th Anniversary of Nara Heijo-kyo Capital / 平城遷都 1300 年記念祝典



Daigoku-den, Nara Heijo Palace Site
大極殿



Commemorative Reception of the 1300th Anniversary of Nara Heijo-kyo Capital / 平城遷都 1300 年記念祝賀会



Lunch : Excursion / 昼食 : エクスカーション



Lunch ~ Nara Heijo Palace Site
昼食~平城宮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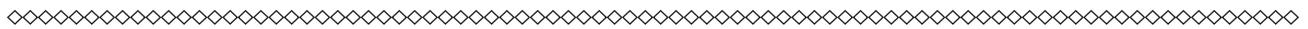


Documentary Photography / 記録写真

Excursion / エクスカーション



Yakushiji Temple / 薬師寺



Farewell Party / フェアウェルパーティー



The First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제1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인사말씀



Message / 인사말씀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실행위원회
위원장
(재) 지방자치연구기구 회장

이시하라 노부오

헤이조쿄에 수도가 건설되어서부터 1300년이되는 2010년, 나라(奈良)의 땅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제1회 회합에서는 회합의 취지에 찬동한 6개국 40개의 지방정부에 의하여 본회합의 운영규칙과 규약을 규정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나라현장’이 채택되었습니다.

협력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합은 역사적, 지역적 관계가 깊은 동아시아의 지방정부 대표가 각 지역의 실정과 과제에 대해 서로 보고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의논을 거듭 하므로써 행정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상호이해를 깊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각국은 경제, 환경, 문화,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제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의 협력, 제휴와 함께 지방정부간에서도 중층적으로 교류를 진행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협력의 가능성이 미발굴 상태입니다.

제1회 회합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금년에 이어 내년의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도 나라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계속적인 회합 개최에 의하여, 지방정부간의 우호와 신뢰관계를 깊이하고 국가간의 외교를 보완하므로써, 동아시아의 더욱더 안정적인 번영과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실행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초대문화부 장관
나라현립대학 명예학장

이여령

국내외로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 일본 나라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진월보로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은 존재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의 제휴가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속에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한 곳에 모여, 각 지역의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며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회합에는 일본에서 18개 지방정부, 중국에서 10개, 한국에서 8개, 베트남에서 2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각각 한 정부씩 참가하여 합계 6개국 40개의 지방정부가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회원으로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며 공존을 향하는 동아시아의 유연한 지혜를 기초로, 다양한 교류속에서 각 지역의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새로운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탄생의 선구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즉 ‘진실한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2010년, 나라(奈良)의 땅에서 태어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 향후의 동아시아 발전의 기초로 되고 ‘진짜’ 회의로 성장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실행위원회
사무국장
나라현 지사

아라이 쇼고

2010년 10월, 여러분들의 협력하에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전 일정이 무사히 끝난 것을 보고 드림과 동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헤이조천도 1300년이 라고하는 기념스러운 해를 맞이하면서 나라현은 많은 행정적 시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은 ‘건국’의 기초로 된 많은 유형, 무형 문화가 동아시아와의 교류에 의하여 건너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활발한 국제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적 사회, 국가적 사회, 지방적 사회 라고하는 3차원속에서 ‘지방적 사회’의 역할에 입각하여 이번 회합을 제창하였습니다.

2009년 10월에 개최된 준비회합인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제창자회합’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의 19개 지방정부의 여러분들의 참석하에 회합의 취지에 대한 찬동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열린 제1회 회합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지방정부로부터도 공감을 받아 회합의 규약이 규정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나라현장’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회합은 3자 이상이 참가하는 다각적인 회합입니다. 1대1의 양자회합보다 대립점을 의식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과제를 공유하며 공통점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합에서는 전체회의가 끝난후, ‘문화재 보존과 관광 진흥’, ‘차세대 교류’ 라고하는 두개의 테마로 나누어, 각 지역의 실정과 과제를 서로 보고하면서 활발한 의논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회합설립을 기념하여 이어령씨와 오카모쓰씨가 강연해주셔서 일반응모로 참가하신 여러분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향후도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 한층 더 결실이 많은 회합이 되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내각총리대신 메시지

(헤이조천도 1300 년 기념사업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제 1 회 회합 개최를 맞이하여)

헤이조천도 1300 년 기념사업의 핵심적인 추진안으로서 동아시아 각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참석해주시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작년의 제창자회합에 참석하시어 오늘의 지방정부회합의 설립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열의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의 국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세계에 열린 성장 센터로서의 동아시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경제, 문화, 문화 등의 여러면에서 동아시아 인근 각국과의 관계강화는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1300 년전 헤이조궁이 있었던 나라에 동아시아 지방정부가 모여, 공통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이해와 교류를 깊이하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의 설립과 향후의 지속적인 개최가 동아시아의 더 나은 발전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번영의 기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0 년 10 월 7 일

내각총리대신 간 나오토

The First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제1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개 최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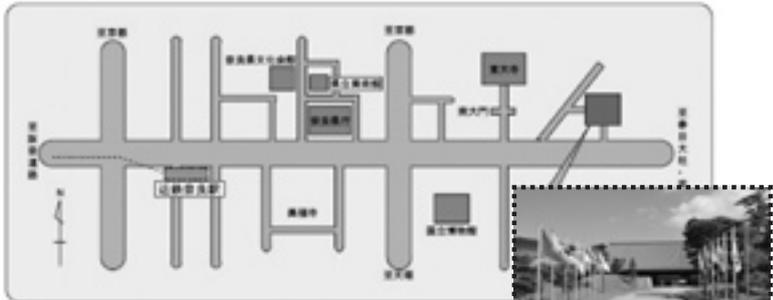
Outline of Program / 개최 개요

개최취지

2009 에 개최된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제창자회합’ 에서 채택된 ‘나라성명’ 을 기초로, 헤이조천도 1300 년을 기념하여 ‘제 1 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을 개최합니다. 본 회합은 향후의 일본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의 기초를 구축 하기위하여, 지방간이 교류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 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 으며, 2009 년도의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제창자회합의 성과를 근거로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나라현장(안) 을 채택하여,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개최개요

주최 :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실행위원회, 나라현
 개최일 : 2010 년 10 월 6 일 (수) ~ 8 일 (금)
 개최장소 : 일본국 나라현 나라시 나라현 신공회당, 호텔 닛코나라



나라현신공회당



호텔 닛코나라



나라 로얄호텔



- 현장지방정부
- 중화인민공화국 : 장쑤성*/안후이성/허난성/섬서성/간쑤성*/시안시*/뤄양시*/양저우시/황산시*/둔황시
 - 인도네시아공화국 : 욕야카르타특별주
 - 필리핀공화국 : 오로라주
 - 대한민국 : 경기도/충청남도/공주시/서산시/부여군/전라남도/경상북도/경주시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광남성*/호이안시*
 - 일본국 : 아오모리현/야마가타현/후쿠시마현/니가타현/도야마현/후쿠이현/기후현/시즈오카현/미에현/시마네현/고치현/구마모토현/나라현/니가타시/나라시/텐리시/가시하라시/아스카무라
- *이번 회합 불참가
- 게스트
- 인도연방공화국 : 바라나시시

Schedule / 스케줄

일	시간	프로그램		장소
		단장 · 수행원 · 실행위원회	수행원	
10/6 (수)	18:00 ~ 20:00	■웰컴·파티【입식】		나라현 신공회당 1F 정원·로비
일	시간	단장 · 위원장	수행원 · 실행위원회 · 읍저버	장소
10/7 (목)	8:40 ~ 9:45	■개회식, 전체회의		호텔 닛코나라 4F 히텐
	9:55 ~ 10:55	■기자회견		호텔 닛코나라 4F 히텐
	11:40 ~ 11:55	■기념촬영		고후쿠지
	12:00 ~ 12:30	■고후쿠지 시찰		
	12:50 ~ 13:50	■점심	■점심	단장: 나라현 신공회당 1F· 아오야나기 수행원: 킨 엘리스 실행위원회·읍저버: 나라현 신공회당 1F 회의실 2
	14:00 ~ 16:40	■테마별 리저널 리포트 (2 테마, 2 회장 동시개최) ①문화유산의 보존, 관광진흥 회의 진행자: 무토 히로시 씨 (일본국 관광청 차장) ②차세대교류 회의 진행자: 다니노 사쿠타로 씨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실행부위원장 (전 중국대사))		나라현 신공회당 2F ①리셉션 홀 ②회의실 3, 4
	17:00 ~ 18:30	■설립기념 강연회 ※일반공개 (사전등록제) 프로그램 ◆설립 기념강연회 I (17:00 ~ 17:40) 오카모토 유키오 씨 (오카모토 어소시에이트 대표이사) ◆설립 기념강연회 II (17:50 ~ 18:30) 이어령 씨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공동실행위원장)		나라현 신공회당 1F 노가쿠 홀
19:30 ~ 21:30	■지사주최연회【정찬】		호텔 닛코나라 4F 히텐	
일	시간	단장	수행원	장소
10/8 (금)	10:20 ~ 12:05	■헤이조천도 1300년 기념축전		헤이조큐유적 다이코쿠텐 앞뜰
	12:30 ~ 13:30		■점심	단장: 호텔 닛코나라 수행원: 나라 로얄호텔
	14:00 ~ 15:30	■헤이조천도 1300년 기념축하회	■익스커션 ※ 13:45 ~ 15:30	단장: 호텔 닛코나라 4F 히텐 수행원: 헤이조천도 1300년제 헤이 조큐유적 회장
	16:10 ~ 17:10	■익스커션		야쿠시지
	18:30 ~ 20:00	■페어웰파티【정찬】		Cu-Cal(나라공원 내)

Registered delegation members of participating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 참가지방정부 대표단 명단

As of October 8, 2010

People's Republic of China

Name	Organization
Anhui Province	
LU, Youqin	Vice Deputy, Anhui Provincial Foreign Affairs Office
HUANG, Yuhua	Director, Anhui Provincial Foreign Affairs Office
CHENG, Feisheng	Director, Anhui Provincial Foreign Affairs Office
JIANG, Yonghong	Interpreter, Anhui Provincial Foreign Affairs Office
SUN, Kangda	Vice Deputy, JiuHua Mountain Managing Committee
WU, Qin	Interperter, Anhui Provincial Foreign Affairs Office
Henan Province	
FENG, Yong Chen	Director-General, Foreign Affairs Office, Henan Province
WANG, Zi Jie	Director, Asia & Africa Division of Foreign Affairs Office, Henan Province
QU, Peng Fei	Director, Foreign Affairs Office, Henan Province
WANG, Zhi Wei	Director, Foreign Affairs Office, Henan Province
Shaanxi Province	
SHI, Jiansheng	Deputy Secretary General, Shaanxi Provincial Government
KAN, Kaipei	Deputy Director General, Foreign Affairs Office, Shaanxi Provincial Government
TIAN, Zhonglin	Director General, Office Research, Shaanxi Provincial Government
WANG, Shihong	Director, Shaanxi Provincial Tourism Administration Bureau
KONG, Yu	Director, Shaanxi Provincial State Cultural Relics Bureau
HUANG, Baozhong	Deputy Director / Interpreter, Foreign Affairs Office, Shaanxi Provincial Government
Yangzhou City	
DENG, Qing	Director, Foreign Affairs Office of Yangzhou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GU, Feng	Deputy Director, Yangzhou Municipal Bureau of Cultural Relics
WANG, Yuqin	Division Chief / Hong Kong and Macao Affairs Division, Foreign Affairs Office of Yangzhou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Dunhuang City	
MA, Shilin	Mayor, Dunhuang Municipal Government
LI, Xinmin	The Chief of the Bureau, Dunhuang Travel Bureau
PAN, Youjun	General Manager, Dunhuang Airport
CAI, Wenbin	Vice Director, Foreign Affairs Office, Dunhuang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Republic of India

Name	Organization
Varanasi City (Guest)	
SINGH, Kaushalendra	Mayor, Nagar Nigam Varanasi
SINGH, Sachchidanand	Additional Municipal Commissioner, VARANASI MUNICIPAL CORPORATION

Republic of Indonesia

Name	Organization
Province of Yogyakarta Special Region	
Sri Sultan Hamengku Buwono X	Governor, Yogyakarta Special Region
Tavip Agus Rayanto	Assistant, Regional Secretary in the field of Governance and Social Welfare, Yogyakarta Special Region
Tazbir	Head, Tourism Department, Yogyakarta Special Region
Djoko Dwiyanto	Head, Culture Department, Yogyakarta Special Region
Heru Suroso	Head, Cooperation Division, BKPM DIY, Yogyakarta Special Region
Imam Pratanadi	Hea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bdivision, BKPM DIY, Yogyakarta Special Region

Republic of the Philippine

Name	Organization
Aurora Province	
CASTILLO, Bellaflor Angara	Governor, Provincial Government of Aurora
ANGARA, Arturo Javier	Mayor, Municipal Government of Baler
TOLENTINO, Reynante Amansec	Mayor, Municipal Government of Dipaculao
BITONG, Ariel Saturno	Mayor, Municipal Government of Maria Aurora
BRIONES, Victorio Bagawisan	Mayor, Municipal Government of Dilasag
TUZON, Guy Alipio Agustin	Executive Officer, Provincial Cooperatives Officer, Investment Promotion Officer, Provincial Government of Aurora
TEH, Luisito Gonzales	Provincial Health Officer II, Provincial Government of Aurora
TOLENTINO, Rodante Angara	Provincial Engineer, Provincial Government of Aurora
TOMBOC, Raul Gabatin	Provincial Health Officer I, Provincial Government of Aurora
CLEMENTE, Norma Reopta	Provincial Budget Officer, Provincial Government of Aurora

Republic of Korea

Name	Organization
Gyeonggi-do Province	
BANG, Ki Sung	Vice Governor, GyeongGi do
CHOI, Chong Chin	Assistant Director, GyeongGi do
LEE, Gwan Hang	Project Manager, GyeongGi do
KIM, Nam Kuk	Project Manager, GyeongGi do
Chungcheongnam-do Province	
GOO, Bohn Choong	Vice Governor, Chungcheongnam-do Province
HONG, Man Pyo	Manager, Chungcheongnam-do Province
CHOI, Byeong In	Assistant Manager, Chungcheongnam-do Province
LEE, Eon Woo	Accompanying Secretary, Chungcheongnam-do Province
HWANG, Eun Seong	Assistant Manager, Chungcheongnam-do Province
Gongju City	
SHIN, Hong Hyun	Citizen Director, Gongju City
WOO, Yeong Kil	Member, A municipal of the Gongju City Council
BANG, Sung Man	President, Federation of Village Foreman, Gongju City
HWANG, Hyeon Ho	Staff, External Cooperation Section, Gongju City
JUNG, Ha Na	Interpreter, Gongju City
Seosan City	
LEE, Wan Seob	Deputy Mayor, Seosan City
KIM, Jun Hwan	Secretary to the Deputy Mayor, Seosan City
LEE, Beom Sin	Manager, International Exchanges, Seosan City
JANG, Soo Mi	Staff (Interpreter), Seosan City
Buyeo County	
LEE, Yong Woo	County Executive, Buyeo County
JUNG, Do Gi	Director, Administrative Support Division, Buyeo County Office
KIM, Jin Goo	Assistant director, Home Affairs & Development Section, Buyeo County Office
KIM, Hyeong Mi	Officer, Education Affairs, Buyeo County Office
LIM, Yeong Cheol	Interpreter, Buyeo County Office
Jeollanam-do Province	
LEE, Jong-Bum	Assistant Governor, Jeollanam-do
LHO, Il Hwan	Manager, JeollaNam-do Osaka Trade Office
PARK, Soon Im	Officer, Policy & Planning Division, International Relations Section, Jeollanam-do
Gyeongsangbuk-do Province	
SON, Se Joo	Ambassador Vice Governor, Province of Gyeongsangbuk-do
MIN, Kyung Su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Events Support, Province of Gyeongsangbuk-do
BAK, Bong Hwan	Staff, Divis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 Trad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LEE, Joung Ah	Staff, Divis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 Trad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Gyeongju City	
LEE, Tae Hyun	Vice Mayor, City of Gyeongju
KIM, Jin Hee	Chief, Cultural Asset Division, City of Gyeongju
LIM, Young Sik	International Affairs Chief, Culture & Tourism Division, City of Gyeongju
BAEK, Sun Ah	PR Officer of Gyeongju in Japan, City of Gyeongju

Registered delegation members of participating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 참가지방정부 대표단 명단

JAPAN

Name	Organization
Aomori Prefecture	
MIMURA, Shingo	Governor, Aomori Prefectural Government
HIRAMATSU, Takeshi	Secretary Governor, Secretarial Division, Department of General Affairs, Aomori Prefectural Government
SHIBUTANI, Yoshihito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Aomori Prefectural Government
KOSAKA, Kan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Aomori Prefectural Government
SATO, Hajime	Executive Senior Chief,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Aomori Prefectural Government
Yamagata Prefecture	
MURAKAMI, Kenichi	Director General, Tourism and Exchange Bureau,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Department, Yamagata Prefecture
NAGAI, Takeshi	Manager, Tourism and Exchange Bureau,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Department, Yamagata Prefecture
SHIMANUKI, Makoto	Director, Osaka Branch Office, Yamagata Prefecture
Fukushima Prefecture	
UCHIBORI, Masao	Vice Governor, Fukushima Prefectural Government
MASUDA, Yuichiro	Director, Planning & Coordination Division, Planning & Coordination Department, Fukushima Prefectural Government
SUZUKI, Toshio	Director, Osaka Office, Fukushima Prefectural Government
NIITA, Satoru	Senior Staff, Secretariat, Governor's Policy Department, Fukushima Prefectural Government
FUJITA, Kazuhiko	Senior Staff, Planning & Coordination Division, Planning & Coordination Department, Fukushima Prefectural Government
Niigata Prefecture	
SAITO, Mitsuo	Director, Niigata Prefecture Osaka Office, Niigata Prefectural Government
MAEDA, Tetsuya	Senior Staff, Governor's Policy Bureau,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Niigata Prefectural Government
Toyama Prefecture	
IGARASHI, Nobuo	Director-General, Tourism & Region Promotion Bureau, Toyama Prefectural Government
MIYAZAKI, Ichiro	Assistant Director, Tourism Division, Toyama Prefectural Government
FUJII, Takatsugu	Staff Member, International Affairs & Japan Sea Region Policy Division, Toyama Prefectural Government
Fukui Prefecture	
NISHIKAWA, Issei	Governor, Fukui Prefecture
KURIYAMA, Shinji	Deputy Director, Policy Promotion Division, Department of General Policy, Fukui Prefecture
SHISHIHARA, Tomohiro	Group Manager, Division of Citizens' Services Fukui Prefecture
HATTORI, Kazue	Group Manager, Policy Promotion Division, Department of General Policy, Fukui Prefecture
TANAKA, Kiyoshi	Director, Fukui Prefectural Government Osaka Office
Gifu Prefecture	
FURUTA, Tsunemichi	Managing Director, Gifu International Center
KIMURA, Manabu	Chief Officer,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Department of Prefectural Policy Planning, Gifu Prefectural Government
Shizuoka Prefecture	
KAWAKATSU, Heita	Governor, Shizuoka Prefectural Government
KURODA, Akinobu	Office Director, Department of Strategic Planning and Public Relations, Secretarial Office, Shizuoka Prefectural Government
IWAKI, Tetsuo	Office Director,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International Affairs Office, Shizuoka Prefectural Government
Mie Prefecture	
NORO, Akihiko	Governor, Mie Prefectural Government
MURAKAMI, Wataru	Director, Policy Department, Planning Office, Mie Prefectural Government
MORI, Takahiro	Senior Staff, Policy Department, Planning Office, Mie Prefectural Government
FUJITA, Yuichi	Senior Staff, Policy Department, Planning Office, Mie Prefectural Government
KATAYAMA, Koji	Senior Staff, Policy Department, Governor's Office, Mie Prefectural Government
ODA, Koji	Chief of Service Staff, Policy Department, Governor's Office, Mie Prefectural Government
Shimane Prefecture	
MIZOGUCHI, Zembee	Governor,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MEZUKI, Osamu	Director, Osaka Office,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YAMANA, Kaname	Director, Culture and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Civic Affairs,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HIRATA, Seiji	Planning Supervisor, Tourism Promotion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HONDA, Katsumi	Secretariat Group Leader, Secretariat Division, Policy Planning Bureau,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KAWAMOTO, Yukari	International Affairs Group Leader, Culture and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Civic Affairs,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MISHIMA, Ko	Senior Clerk, Culture and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Civic Affairs,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MEISHO, Norihisa	Senior Clerk, Tourism Promotion Division, Department of Commerce, Industry and Labor,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Name	Organization
Kochi Prefecture	
OZAKI, Masanao	Governor, Kochi Prefectural Government
YAMAJI, Kazu	Deputy Director, Secretariat Division, Kochi Prefectural Government
SAWATANI, Hiroko	Staff, Culture and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Kochi Prefectural Government
Kumamoto Prefecture	
KABASHIMA, Ikuo	Governor, Kumamoto Prefectural Government
MATSUNAGA, Kizuku	Deputy-Director, Tourism and International Exchange Division, Kumamoto Prefectural Government
NAGATA, Kiyomichi	Assistant Deputy Director, Office of the Governor, Kumamoto Prefectural Government
NAKASHIMA, Tsuyoshi	Assistant Deputy Director, Secretariat Division, Kumamoto Prefectural Government
FUKUNAGA, Kimihiko	Assistant Deputy Director, Planning Division, Kumamoto Prefectural Government
Nara Prefecture	
ARAI, Shogo	Governor, Nara Prefectural Government
KUBOTA, Osamu	Vice Governor, Nara Prefectural Government
HIRONO, Takanobu	Director General, Department for Commemorative Events of the 1300th Anniversary of Nara Heijo-kyo Capital, Nara Prefectural Government
TERADA, Yutaka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for Commemorative Events of the 1300th Anniversary of Nara Heijo-kyo Capital, Nara Prefectural Government
NAKAJIMA, Keisuke	Director, Planning Division, Department for Commemorative Events of the 1300th Anniversary of Nara Heijo-kyo Capital, Nara Prefectural Government
Niigata City	
SHINODA, Akira	Mayor, City of Niigata
SEKIKAWA, Takehiko	Section Chief, Tourism Policy Division, City of Niigata
KARIYA, Masanori	Section Chief, Cultural Policy Division, City of Niigata
KANEKO, Hiroaki	Section Chief, Foreign Affairs Division, City of Niigata
Nara City	
NAKAGAWA, Gen	Mayor, Nara City
YAMAMOTO, Jirou	Director, Tourism and Economic Affairs Department, Nara City
TATSUMI, Ichirou	Director, Projects Department, Nara City
ARAKI, Keiko	Director, General Education Department, Nara City
MORI, Nobuyasu	Director, Tourism Strategy Division, Nara City
Tenri City	
MINAMI, Keisaku	Mayor, Tenri City
FUKUI, Tsuneo	Vice Mayor, Tenri City
FUJITA, Toshifumi	Director, Administration Department, Tenri City
TAKEKABU, Michihiro	Manager, Secretariat Section, Mayor's Office, Tenri City
KAWAKITA, Seiko	Assistant Manager, Secretariat Section, Mayor's Office, Tenri City
Kashihara City	
MORISHITA, Yutaka	Mayor, Kashihara City
NISHIMOTO, Kiyofumi	Special Aide, Kashihara City
OKAZAKI, Masumitsu	Director, Planning and Coordinating Department, Kashihara City
FUJIOKA, Takashi	Deputy Director, Planning and Coordinating Department, Kashihara City
YAMAZAKI, Takahiro	Assistant Manager, Planning Division, Planning and Coordinating Department, Kashihara City
Asuka Village	
SEKI, Yoshikiyo	Mayor, Asuka Village
KUBOTA, Katsuhiko	Section Chief, Administration Section, Asuka Village
URANO, Yoshinori	Assistant Manager, Administration Section, Asuka Village
KITAMURA, Akira	Chief Examiner, Administration Section, Asuka Village

The First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제1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개회식·전체회의



Summary of Opening Ceremony and Plenary Session / 개회식 · 전체회의 개요

개회식에서는 영상과 함께 지방정부와 단장분들을 소개했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실시된 전체 회의에서는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의 의장이 선출되어 본 회합의 운영규칙 등을 규정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나라현장’ 및 ‘제 1 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공동성명’ 이 채택되었습니다.

- 실시일시 : 2010 년 10 월 7 일 (목) 8:40 ~ 9:45
- 참가자 : 참가지방정부, 실행위원, 읍 저버 (주 오사카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 오사카 인도네시아공화국 총영사관, 재 오사카 · 고베 필리핀공화국 총영사관, 재 오사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총영사관, 일본국 총무성, 일본국 외무성 등)
- 회장 : 호텔 닛코나라 4F 히텐
- 프로그램
 1. 개회
 2. 참가지방정부 소개
 3. 개회선언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실행위원회 위원장 이시하라 노부오)

710 년 동아시아의 각국 및 각지역으로부터 지혜와 기술,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여 일본 최초의 수도인 헤이조쿄가 탄생했다. 올해, 헤이조쿄도 1300 년인 기념스러운 해를 맞이한 나라현에서 그 지혜를 나누기 위해 인연 깊은 동아시아 각국의 지방정부가 모였다.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적인 미래를 위해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의 개회를 선언한다.

4. 내각총리대신의 메시지 소개
5. 실행위원 · 읍저버의 소개
6. 전체회의
 - 의장선임
 -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나라현장 개요 설명과 채택
 - 제 1 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공동성명 설명과 채택
7. 폐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실행위원회 위원장 이어령)

오늘 동아시아의 7 개국 · 40 개의 지방정부에 의해,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나라현장이 채택되었다.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존을 목표로하는 동아시아의 융통적인 지혜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류 속에서 지역의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어 실천하는 이 지방정부회합은 새로운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탄생의 선구로서 기대된다. 2011 년에도 다시 여러분들과 나라의 땅에서 만날 것을 기대한다.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나라현장 (안) 의 협의 요지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제안의 경위

○헤이조쿄는 한국,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국제적 기준과 고대 일본의 국가적 기준을 병립하여 건설된 수도이다. 나라는 역사적인 발전과 근대화에 의한 지역변용의 영향을 받지 않아 8 세기 당시의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적 유전자를 느낄 수 있는 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나라의 땅에서 과거의 동아시아 각국과의 교류에 감사하고 동아시아의 미래로 이어질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한국 · 중국 및 일본의 지방 정부에 호소로 작년에 개최된 제창자회합의 찬동하에, 많은 지방정부가 참가한 이번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현장의 개요설명

- 전문 : ①동아시아 각 지역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고 협력과 연계를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②다양한 동아시아의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다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③지방정부도 향후의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상호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실정과 과제를 직접적으로 받아 들이는 입장에 있어 각자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에 대한 솔직한 논의를 통해 진정한 상호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지역의 실정을 서로 보고하고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기적인 회합이 필요하다. 회합의 지속적인 개최는 지식의 확대, 행정능력의 향상, 지방정부간의 우호와 신뢰 관계 증진, 나아가서는 국가간,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 현장전체 : (개요) 회합은 회원들의 상호 학습의 장으로서 회원및 특별회원, 게스트로 구성하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간사회를 두고 사무국을 나라현에 둔다.

- 제 2 조 : (목적) 동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 과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며, 지방정부회합의 논의를 통해 참가자가 지역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향상시킨다.
- 제 3 조 : (사업) 정기적인 회합개최, 참가자의 상호이해와 행정능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정보 제공, 기타 ‘지방정부회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4 조 : (회원) 지방정부회합은 회원·특별회원·게스트로 구성하고, 회원은 2010년 회합에서 현장채택에 참가한 지방정부(이하 ‘현장지방정부’라고 부른다) 및 2011년 이후, 현장에 근거하여 회원으로 된 지방정부이며, 현장지방정부는 간사회의 회원으로 되어,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 제 5 조 : (가입) 두개 이상의 가맹지방정부의 추천과 간사회의 전회일치로 승인이 필요.
- 제 6 조 : (탈퇴) 탈퇴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할 것.
- 제 7 조 : (회합의 개최) 원칙 연간 1회로 하여 소집자 및 의장은 개최지방정부의 대표자가 맡고 회합의 계속을 위해 2013년까지는 나라현에서 개최한다.
- 제 8 조 : (간사회) 간사회의 회원은 올해 나라현장 채택에 참가한 현장지방정부다. 간사회는 회합에 맞춰 개최하고 의장은 호선. 간사회의 역할은 ①현장 변경(전회일치), ②회원 가입 결정(전회일치), ③회합 개최 및 개최일 결정, ④회합 의사 결정, ⑤특별회원 결정, ⑥기타. ①②는 전회일치, 그 외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 제 9 조 : (특별회원) 두 이상의 간사회 회원의 추천과 신청에 의해 간사회에서 결정. 특별회원 자격은 계속된다.
- 제 10 조 : (게스트) 개최지방정부의 대표자가 추천하여 참가 요청할 수 있다. 게스트는 회합에 출석하여 요청된 테마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다.
- 제 11 조 : (경비) 회합 개최에 필요한 경비 및 회합 출석 대표단의 숙박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최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회합 출석에 필요한 해외 출국비용과 여비는 출석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 제 13 조 : (사무국) 나라현에 둔다.
- 제 14 조 : (잠정조치) 지방정부회합의 계속 개최를 꾀도에 올리기 위해 2013년까지는 나라현에서 개최하지만, 다른 지방정부의 개최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개최를 검토하는 지방정부가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한다.

의견교환

특히 의견은 없고 전회일치로 나라현장(안)을 원문대로 채택

-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로고의 소개

제 1 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공동성명(안) 개요설명·채택

공동성명(안) 개요설명

- 주민들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동아시아가 협력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 공헌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유적인 사고방식과 더불어 향후의 평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 지방정부는 다시 한번 동아시아의 안정된 발전과 평화에 대하여 기본적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정부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회합을 설립한다. 채택된 ‘나라현장’에 근거하여 ①매년 회합을 개최하여 각 지역의 현상과 과제를 서로 보고하여 그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②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연구자, 전문가, 실천자가 참가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을 위한 토론을 한다. 회합의 보고와 검토 내용은 간행물 등으로 공표하고 그 성과를 다른 지방정부도 활용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지방 실태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한다.
- 또한 동아시아의 다른 지방정부에도 회합에의 참가를 널리 요청하여 동아시아의 지방정부와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기존 회의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간의 지식 교환과 공유화를 추진한다. 국가(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다국간 협력과 신뢰구축에 주목하여, 그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중앙정부간의 협력의 기틀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의 자세를 모색한다.
- 2011년 회합은 나라에서 개최한다.

의견교환

특히 의견은 없고 전회일치로 공동성명(안)을 원문대로 채택

(Authentic)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Nara Charter

Preamble

We, the representatives of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East Asia, which have conducted exchanges that date back through more than a millennium, have convened in the year 2010 here in Nara, the birthplace of the ancient Japanese capital of Heijokyo commemorating its 1,300th anniversary. Recognizing that we share many cultural heritages, we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globalization, the stable prosperity and progress of East Asia is predicated upon enhancing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hile respecting our diversities, fostered by the history and culture of our respective regions.

To deepen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diverse communities in East Asia, there must be continuous exchanges covering a wide range of areas.

Because of our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we, th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know firsthand the realities and challenges facing our communities, and the candid discussion of such issues will promote true mutual understanding among us, th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to assemble regularly to update one another on the realities and challenges of our regions, discuss common issues, promote deeper understanding, and explore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By thus convening on a regular basis, we, th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can enrich our knowledge, improve our administrative capacities, strengthen friendship and trust amongst ourselves, and furthermore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relations among nations in East Asia and, ultimately,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East Asia as a whole.

Article 1 : Establishmen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Preamble, we hereby establish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gress").

Article 2 :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e Congress are :

- (1) To engage in candid exchange of views and deepen mutual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challenges relevant to the regions of East Asia, such as promot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mproving the quality of living standards, ad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and population aging, preserving cultural heritages, promoting tourism, providing quality education, and encouraging exchanges among future generations ; and
- (2) Through exchange of views in the Congress,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capacities of Member Governments to solve the issues facing their respective regions.

Article 3 : Activities

The activities of the Congress shall be :

- (1) To meet on a regular basis ;
- (2) To provide information to further mutual understanding among Member Governments and promote higher levels of administrative capacities ; and
- (3) To engage in other activities as would help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Congress.

Article 4 : Membership

1. Members of the Congress shall be th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which sign this Chart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arter Governments") and all othe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which are approved for membership in the Congres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below.
2. Each Member Government shall be represented by the head of its executive body.
3. Charter Governments are shown in the attached Table.

Article 5 : Admission

1.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wishing to apply for membership to the Congress shall submit to the Secretariat their written application with letters of endorsement from two or more current Member Governments.
2. Approval for membership shall be based on the unanimous consent of Charter Governments.
3. Membership shall be effective as of the day approval is granted.

Article 6 : Withdrawal

Members wishing to withdraw from the Congress may do so by submitting to the Secretariat a written notice of withdrawal.

Article 7 : The Congress Meeting

1. The Congress Meeting shall be held once a year in principle.
2. The Congress Meeting shall be attended by the representative of each Member Government. When a representative is unable to attend, an authorized delegate may attend on their behalf.
3. The Congress Meeting shall be call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Member Government holding the Congress Meeting.
4. The Congress Meeting shall be chair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Member Government holding the Congress Meeting.

Article 8 : Executive Committee

1. An executiv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operations of the Congress.
2.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arter Governments.
3.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determine :
 - (1) Amendments to the Congress Charter ;
 - (2) Admission of new members ;
 - (3) Dates and venues of the Congress Meetings ;
 - (4) The agenda of the Congress Meetings ;
 - (5) Admission of special members ; and
 - (6)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Congress.
4. The chairpers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rom among its members.
5.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in principle, meet in conjunction with the Congress Meeting. If necessary,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additional meetings.
6. The quorum of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consist of one half of the members currently serving on the committee.
7. With the exception of Clauses 3 (1) and (2) above, decisions of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with the chairperson casting the deciding vote in the event of a tie. Decisions relating to Clauses 3 (1) and (2) above shall be made by unanimous consent of all members, including those not present at the meeting on that day.
8. The provisions of Clause 2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xecutive committee.

Article 9 : Special Membership

1.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ishing to apply for special membership in the Congress shall submit to the Secretariat their written application with letters of endorsement from two or more current members of the executive committee.
2.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granted special membership may participate, with the right to speak, in the Congress Meetings.
3. Special membership shall continue unless it is terminated by withdrawal.

Article 10 : Guests

1. Guests shall be recommended and invit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Member Government holding the Congress Meeting.
2. Guests may participate in the Congress Meeting and give presentations on the theme(s) for which they have been invited.

Article 11 : Expenses

In principle, expenses relating to the holding of the Congress Meeting, as well as lodging expenses for the participating delegates, shall be borne by the Member Government holding the Congress Meeting. Member Governments participating in the Congress Meeting shall bear the cost of air and other travel and transportation associated with their delegates attending the Congress Meeting.

Article 12 : Reports

1. The Member Government which held the Congress Meeting shall, in principle within 3 months of the Congress Meeting, send a report of the Congress Meeting to each Member Government.
2. Member Governments which receive such report can forward copies to their central government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s well as to make the said report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rticle 13 : Secretariat

1. A Secretariat shall attend to the administrative matters relating to the Congress.
2. The Secretariat shall be situated in the Nara Prefectural Government.
3. The Secretariat shall be composed of the director and their staff.
4. The Secretariat shall be responsible for :
 - (1)Receiving of documents relating to application for membership or withdrawal ;
 - (2)Compilation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the Congress ;
 - (3)Administrative support to the Member Government holding the Congress Meeting ;
 - (4)Keeping of records and managing public relations ; and
 - (5)Other administrativ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ngress.

Article 14 : Provisional Measures

1. The Congress Meetings shall be held by Nara Prefecture. In this case Japanese Member Governments participating in the Congress Meeting shall bear the lodging expenses.
2. The stipulation of the preceding Clause is provisional and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Congress Meeting of 2013.

Supplementary Provision

This Charter shall come into effect upon its ratification at the Congress Meeting of 2010.

Table : Charter Governments
(Attached Table)

People' s Republic of China	Republic of Indonesi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Japan
Jiangsu Province Anhui Province Henan Province Shaanxi Province Gansu Province Xian City Luoyang City Yangzhou City Huangshan City Dunhuang City	Province of Yogyakarta Special Region	Aurora Province	Gyeonggi-do Province Chungcheongnam-do Province Gongju City Seosan City Buyeo County Jeollanam-do Province Gyeongsangbuk-do Province Gyeongju City	Quang Nam Province Hoi an City	Aomori Prefecture Yamagata Prefecture Fukushima Prefecture Niigata Prefecture Toyama Prefecture Fukui Prefecture Gifu Prefecture Shizuoka Prefecture Mie Prefecture Shimane Prefecture Kochi Prefecture Kumamoto Prefecture Nara Prefecture Niigata City Nara City Tenri City Kashihara City Asuka Village

* Countries are put in alphabetical order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나라헌장(참고번역)

(전문)

일본의 수도가 나라 헤이조쿄에 천도되어 1300년에 해당하는 서기 2010년에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우리 동아시아 지방정부의 대표는 나라에 모여 우리가 수많은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 하였다.

글로벌화가 진척되는 국제환경 아래 앞으로 동아시아의 안정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육성되어 온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이해와 협력·연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을 가진 동아시아의 상호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다분야에 걸친 부단한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는 각 지역민들의 실정과 과제에 직면해 있어 그에 대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진정한 상호이해가 가능하다.

이에 지방정부의 실정과 과제를 상호 보고하고 공통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여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정기적인 회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합의 지속적인 개최는 각 지방정부의 지식을 확대시켜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우리 지방정부간의 우호와 신뢰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 1 조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설립)

전문에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이하 '지방정부회합' 이라 함.)을 설립한다.

제 2 조 (목적)

'지방정부회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동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 (지역경제의 진흥, 지역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 환경문제, 고령화 문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 진흥, 교육, 차세대의 교류확대 등)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한다
- (2) '지방정부회합'의 논의를 통해 참가자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3 조 (사업)

'지방정부회합'의 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기적인 회합의 개최
- (2) '지방정부회합' 참가자의 상호이해와 행정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보의 제공
- (3) 기타 '지방정부회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 조 (회원)

- 1 '지방정부회합'의 회원은 본 헌장에 참가한 지방정부 (이하 '현장지방정부'라 함) 및 다음 조항에 의해 '지방정부회합'에의 가입이 인정된 지방정부로 한다.
- 2 각 회원의 대표자는 각 지방정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3 현장지방정부는 별표와 같다.

제 5 조 (가입)

- 1 '지방정부회합'에 가입하려는 지방정부는 이미 가입한 2 이상의 지방정부의 추천과 더불어 가입하려는 의사를 문서로 사무국에 제출한다.
- 2 가입승인은 현장지방정부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3 회원자격은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6 조 (탈퇴)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문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 (회합의 개최)

- 1 회합은 원칙적으로 연간 1회 개최한다.
- 2 회합은 회원의 대표자가 출석한다. 단, 대표자가 회합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회합에 출석할 수 있다.
- 3 회합은 개최지방정부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 4 회합의 의장은 개최지방정부의 대표자가 맡는다.

제 8 조 (간사회)

- 1 '지방정부회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회를 둔다.
- 2 간사회의 멤버는 현장지방정부로 한다.
- 3 간사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실시한다.
 - (1) '지방정부회합'현장의 변경
 - (2) 회원의 가입 결정
 - (3) 회합의 개최지 및 개최일의 결정
 - (4) 회합의 의사 결정
 - (5) '지방정부회합'의 특별회원 결정

- (6) 기타 '지방정부회합'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
- 4 간사회의 의장은 호선으로 한다.
- 5 간사회는 원칙적으로 회합의 개최에 맞춰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6 간사회의 정족수는 간사의 2분의 1로 한다.
- 7 간사회의 의결은 제 3항 제 1호, 제 2호를 제외하고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항 제 1호, 제 2호에 관한 의결은 당일 결석한 간사도 포함하여 전회 일치로 한다.
- 8 전 조 제 2항의 규정은 간사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9 조 (특별회원)

- 1 특별회원으로서의 참가를 요구하는 단체, 개인은 2 이상의 간사회 멤버의 추천과 더불어 사무국에 문서로 신청한다.
- 2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 개인은 회합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 특별회원자격은 계속된다.

제 10 조 (게스트)

- 1 게스트는 개최지방정부의 대표자가 추천하여 참가를 요청한다.
- 2 게스트는 회합에 참가하여 요청된 테마에 대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 11 조 (경비)

회합 개최에 관련된 경비 및 회합 출석대표단의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개최의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회합 출석 관련 도항비를 포함한 여비를 출석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보고서)

- 1 회합을 개최한 지방정부는 원칙적으로 회합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실시보고서를 회합 참가지방정부에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 2 송부받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포함한 기타 단체에 보고서를 송부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 13 조 (사무국)

- 1 '지방정부회합' 사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은 나라현에 둔다.
- 3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에 의해 운영된다.
- 4 사무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문서의 접수
 - (2) 회합의 운영에 관한 정보의 보관 및 제공
 - (3) 개최지방정부에 대한 사무적 지원
 - (4) 기록의 보관 및 홍보
 - (5) 기타 '지방정부회합'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 14 조 (잠정조치)

- 1 회합은 나라현이 주최자가 되어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일본국내에서 회합에 출석하는 대표단의 숙박비는 제 11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출석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한다.
- 2 전항의 규정은 2013년의 회합시까지 잠정조치로 한다.

부칙 이 현장은 2010년 회합에서 채택된 후 발효된다.

(별표)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일본국
장쑤성 안후이성 허난성 섬서성 간쑤성 시안시 뤄양시 양저우시 황산시 둔황시	육야카르타특별주	오로라주	경기도 충청남도 공주시 서산시 부여군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주시	광남성 호이안시	아오모리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시마네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나라현 니가타시 나라시 덴리시 가시하라시 아스카무라

(주) 국가명은 알파벳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Authentic)

Joint Statement on the First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2010

Mutual cooperation for strong network-building among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having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respective residents,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of nurturing a sense of community in East Asia and for East Asia to concertedly contribute to global peace and prosperity.

In the context of rapidly increasing globalization and changing international paradigms, w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share the universal stance of respecting our diversities in culture and tradition, fostered by the history and culture of our respective regions, as well as shifting the goal of peacefu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now and into the future.

Upon this recognition, we who have come together in Nara on October 7, 2010, the 1,3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the Japanese capital of Heijokyo, which was constructed in its day with the knowledge and technology of East Asia, hereby recognize anew the basic responsibility w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have for the stable development and peace of East Asia, and agree to strengthen the collaboration between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To achieve this purpose, we welcome the call of Shogo Arai, Governor of Nara Prefecture, Japan, to establish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and we will participate in this effort.

W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gress") shall perform the following.

1. In accordance with the "Nara Charter" adopted on this day,

- (1) The Congress shall convene a meeting every year, where each member will report their current realities and challenges for mutual sharing and learning.
- (2) We will particularly address the challenges shared by th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such as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the maintenance and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raditional values, dealing with local environmental issu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cluding population ageing, correcting intra- and inter-regional disparities,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cluding education. Together with researchers, experts, and those involved on site in these fields, we will discuss in depth and consider solutions.
- (3) Through means such as periodicals we will swiftly report on what was presented and discussed during such meetings, making our results available for the use of othe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while at the same time helping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realities of East Asia in the minds of our central governments as well as of the general public.

2.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goals of the Congress and expanding its significance, we will

- (1) Issue a broad call to other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in East Asia to expand our membership ;
- (2) Through collaboration with existing conference organizations, mainly organized around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groups, we will exchange, accumulate, and share information and knowledge ; and
- (3) Placing importance on the construc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on the building of confidence in East Asia that is currently being pursued by our central governments, and based on cooperating with our central governments, we will engage in activities which will help to achieve this objective and provide information, knowledge, and views as required, while calling on our central governments to support our activities.

In addition to coope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s, we will emphasize the value of building a framework of cooperation between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based on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as we explore ways to collaborate with our central governments.

The Congress Meeting for the year of 2011 shall be held by Nara Prefecture.

(Oct 7, 2010)

2010년 제1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공동성명(참고번역)

주민들과 가까운 우리들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 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공동체 의식 형성과 동아시아 각국이 협력하여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하나이다.

국제적 기틀의 변화와 국제화가 급격한 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동아시아 지방정부는 각국의 풍토와 역사 안에서 육성된 동아시아의 문화 및 전통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향후의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적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2010년 10월 7일, 그 옛날 동아시아의 지혜와 기술에 의하여 건설된 일본의 수도·헤이조쿄의 탄생으로부터 1300년을 맞이하는 나라현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번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발전과 평화에 우리 지방정부가 기본적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각 지방정부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지방정부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아라이 쇼고 일본국 나라현 지사의 제창을 환영하고 이 회합에 참가한다.

우리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 (이하 '회합'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오늘 채택한 '나라 현장'에 근거하여

- (1) 매년 회합을 개최하고 각 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서로 보고하며 그 지식을 공유해 서로 배운다.
- (2) 특히 지역 경제의 발전, 자연 및 전통가치의 유지와 보전,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고령자 문제를 포함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격차의 시정, 교육을 포함한 인재육성 등 우리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있는 과제에 대해 해당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실천자가 참가하여 논의를 거듭함으로써 해결을 향한 검토를 진행한다.
- (3) 이러한 회합의 보고 및 검토 내용은 간행물 등으로 신속히 공표하여 그 성과를 다른 지방정부도 활용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중앙정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지방 실태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한다.

2. 회합의 목적을 실현하고 그 의의를 넓히기 위하여

- (1) 동아시아의 다른 지방정부에도 회합에의 참가를 널리 요청하여 회원을 확충한다.
- (2) 동아시아의 지방정부와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기존 회의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간의 지식교환과 공유화를 추진한다.
- (3) 국가(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동아시아의 다국간 협력과 신뢰구축에 주목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전제로 그 실현에 공헌할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지식·의견을 제공함과 동시에 본 활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특히 중앙정부간의 협력에 더해, 각각의 권한과 책임에 근거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의 기틀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의 자세를 모색한다.

2011년 회합은 나라현에서 개최한다.

(2010년 .10월 .7일)

The First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제1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리저널 리포트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1 / 리저널 리포트 테마1 개요

테마 1 : ‘문화유산의 보존, 관광진흥’

리저널 리포트 테마 1에서는 참가 지방정부로부터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유산을 활용한 관광 진흥의 지금까지의 시책과 향후의 진흥책’에 대한 리포트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본 테마에 대해 국제적인 시점에서 출발하여 견지하고 고찰한 과제에 대해, 각 지방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었으며, 회의 진행자에 의해 회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 실시일시 : 2010년 10월 7일(목) 14:00 ~ 16:40

● 참가자 : 참가지방정부, 실행위원회, 일본국 총무성, 일본국 외무성, 참가국 재 오사카 총영사관 외

● 회장 : 나라현 신공회당 2F 리셉션 홀

● 참가지방정부 : 27개 지방정부 (밑줄은리저널 리포트를 발표한 지방정부)

■ 중국 : 안후이성 · 허난성 · 산시성 · 양저우시 · 둔황시

■ 인도 : 베나레스시

■ 인도네시아 : 육야카르타특별주

■ 필리핀 : 오로라주

■ 한국 : 경기도 · 충청남도 · 공주시 · 서산시 · 부여군 · 전라남도 · 경주시

■ 일본 : 아오모리현 · 야마가타현 · 후쿠시마현 · 니가타현 · 도야마현 · 후쿠이현 · 미에현 · 시마네현 · 고치현 · 니가타시 · 덴리시 · 아스카무라

● 퍼실리테이터 : 일본국 관광청 차장 : 무토 히로시

● 차례 :

개회
회의 진행자의 코멘트
Session I : 지방정부 [1] ~ [10] 리저널 리포트의 발표
지방정부 코멘트
회의 진행자의 코멘트
휴식
Session II : 지방정부 [11] ~ [16] 리저널 리포트의 발표
회의 진행자에 의한 회의 내용 정리
폐회

● 발표순 :

Session I

[1] 안후이성 (중국) [2] 허난성 (중국) [3] 산시성 (중국) [4] 양저우시 (중국) [5] 니가타시 (일본)
[6] 충청남도 (한국) [7] 전라남도 (한국) [8] 경주시 (한국) [9] 아오모리현 (일본)
[10] 야마가타현 (일본)

Session II

[11] 베나레스시 (인도) [12] 육야카르타특별주 (인도네시아) [13] 서산시 (한국)
[14] 부여군 (한국) [15] 후쿠이현 (일본) [16] 시마네현 (일본)

1. 안후이성 순 캉다 (안후이성 지주시 구화산관리위원회 부주임)



중국 안후이성 지주시에 있는 구화산(九華山)은 지장보살의 성지다. 국가 5A급 관광경승지이고, 국가 지오파크, 자연·문화복합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20㎢, 보호지정면적은 174㎢이다. 719년에 신라의 왕자가 구화산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99세로 돌아가셨다. 그 생전과 사후에 보여진 길조에 의해 왕자는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져 이곳이 지장보살의 영지가 되었다. 구화산의 이름은 이백이 ‘영산개구화’라고 읊은 것에 유래한다. 현존하는 문화재는 2000점, 사적은 20곳으로 명나라의 경문과 청나라의 황제 휘호가 국보급으로 여겨지고 있다. 산이 아름다워 청류와 폭포, 운해와 수빙, 브로켄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연꽃도 매우 아름답다. 삼림면적이 90%를 넘고 1460여종의 식물, 253종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는 그 다양성이 지켜지고 있다. 불교문화와 자연경관은 구화산의 관광유산이며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되어 있다.

한편 구화산은 장강 델타 경제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국도, 국제여객항, 철도와 고속도로가 가까운 등 교통편이 편리하고 비행장도 건설중이다. 우리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 구화산의 실정을 바탕으로 자연보호는 사명, 관리는 책무, 발전은 임무라고 생각하고 구화산의 관광경제와 사회생활의 발전을 촉진해 왔다. ‘산 위에서는 뺄셈을, 산 밑에서는 덧셈’이라는 정비 컨셉을 바탕으로 자연경관지역에서 불필요한 시설을 이전시키고 녹화를 진척시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구화산은 현재 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의 정비목표 ‘중국 안후이성 남부 국제여행문화 모델지구’와 ‘환강도시벨트산업전환 수용모델지구’를 바탕으로 구화산을 지켜 후세에 전하는 것은 경승지 개발의 전제이며 책무이기도 하다. 이 지역의 종합적인 관리레벨을 향상시켜 정보의 플랫폼을 마련하여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구화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생각이다.

2. 허난성 핑 융천 (허난성 인민정부 외사변공실 주임)



허난성은 중화문명의 발상지이며 중화민족의 역사에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었다. 3000년 동안에 20개의 왕조가 허난에 수도를 두었고 200명의 황제를 배출했다. 중국의 8대 고도(古都) 가운데 4곳이 허난성에 위치하며, 고적유구가 3만개소, 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가 140만점, 세계문화유산이 3곳, 국가의 문화보호시설이 198곳, 국가의 제 11차 5개년 계획에 설정된 100곳의 대형유적 가운데 14곳이 위치한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계승·보호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참가를 장려해야 한다. 문화자원의 보호와 개발은 표리일체이며 문화자원이 제대로 보호되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먼저 보호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허난성의 관광산업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서쪽으로는 삼문협, 동쪽으로는 상구, 동북으로는 복양에 이르는 황하강변을 문화·에코 관광루트로 하는 ‘하나의 축’, 그리고 행정의 틀을 넘어서 관련성을 가진 관광지를 도시관광, 문화체험, 산촌 리조트, 농촌 레저로 나누는 ‘네개의 블럭’을 구상중이다. 예를 들면 문화체험 블럭에서는 소림사, 용문석굴, 백마사, 청명상하원, 현장 삼장, 은허, 상구를 대상으로 중국의 기본적인 전통문화를 조합시켜 문화관광지역을 형성하여 국제시장을 겨냥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관광지의 질적향상, 관광자원의 양식있는 개발, 관광서비스 자원의 국제화를 추진해 온 결과, 2009년의 관광객은 연 2억 3437만 8000명, 그 중 외국인 관광객이 연 125만 8000명, 국내 관광객이 연 2억 3312만명, 관광총수입은 1984억 6400만원에 달했다. 이로써 허난성의 경제는 크게 발전했다. 2015년에는 국내의 관광객총수가 연 3억 9000만명, 그 중 역외 관광객을 연 370만명, 관광총수입은 안후이성 GDP의 약 13%에 상당하는 3745억위안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업을 허난성의 기간 산업으로 키워가고자 한다.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1 / 리저널 리포트 테마 1

3. 산시성 스젠성 (산시성 인민정부 부비서장)



산시성과 나라 (奈良) 의 우호적인 역사는 오래되어 기원 6 ~ 7 세기에는 십여 차례에 걸쳐, 견수사와 견당사가 파견 되었다. 감진대사는 여섯번이나 도전한 끝에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와 문화를 전했다. 1974년에는 시안시와 나라시가 우호제휴를 맺은후 성내 9시가 일본의 도시와 우호도시제휴를 맺고 있다.

산시성내의 문화재와 역사적 유산의 밀도, 수량, 수준은 전국 제일이다. 중화민족의 문화와 문명을 거목에 비유한다면, 베이징은 잎이 우거진 나무의 상층부, 산시성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 또, 고대 장안성은 세계 최대의 국제 도시였을 뿐 아니라 중국 농경문화의 발상지이며 농업의 시조 신농씨가 농업을

시작한 곳이다.

또한, 산시성은 뛰어난 인재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지역이 배출한 진나라의 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하여 중앙집권 국가를 확립한 것 외에 한나라의 장건도 여기서 실크로드로 출발 했다. 시안은 13 개 왕조의 도읍이었으며, 황제들은 이곳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사후 이 땅에 묻혔다. 한나라의 고조, 한나라의 무제,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 등도 이곳에 묻혀 있다.

이 지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황토고원, 관중평원, 진과산구로 나뉘어 각각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다. 불교의 8 대 종파 가운데 여섯 종파의 조정 (祖庭) 이 이곳에 있다. 대안탑, 대청진사, 대홍선사, 중앙궁, 청룡사, 선유사 등 수많은 종교적인 문물이 남아있는 외에 자연경관도 뛰어나 화산 (華山), 호구폭포, 황토고원 등 다채로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관광과 문화유산의 보호를 결부시킴으로써 새로운 관광지를 창출하고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확대시켜 가고자 한다. 인간 본위의 문화유산보호와 관광진흥을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문화재 투어리즘에 주력하여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전세계에 산시성의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만 미래를 알 수 있다. 귀중한 역사문화유산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고 정신적인 재산이기도 하다.

4. 양저우시 구 평 (양저우시 문물국장)



감진대사의 고향인 양저우로부터 헤이조천도 1300 년을 진심으로 축드린다. 양저우시는 중국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강과 대운하가 교차하는 곳에 있다. 2500 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문화도시이며 유엔 해비타트 프로젝트의 인간거주상도 수상했다. 또, 중국 24 개역사도시 중의 하나로서, 한·당·청나라 시대의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러한 유산은 중국문화를 연상시켜주며 역사의 변천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남북 문화의 훌륭한 이 곳에 융합되어 있고 중국 고대의 다양한 작품·학문 학파가 여기에 있다.

양저우시의 문화는 낡음과 새로움을 겸비하고 있다. 양저우의 예능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주며 먹거리도 유명하다. 또한, 매우 낭만이 넘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도시관리자로서 관광객들에게 관광을 통해 문화를 체험시키고자 한다. 문화자원은 도시구성의 중요한 요소이고, 문화유산의 합리적인 활용으로 적절한 보호를 진행하는 것이다. 2007 년부터 모델사업이 시작되어 낡은 건축물을 남긴채 주택, 호텔을 건설하고 나무와 물을 보호하여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양저우시는 환경보호와 관광을 결부시킨 중국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다. 2014 년 양저우시는 2500 주년을 맞이하므로 이를 향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갖가지 곤란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하고, 경제발전과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도 참가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도시와도 교류할 생각이다. 이번 교류를 통해 우리들은 같은 것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징을 서로 인정하고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동방의 문화에서는 ‘화’ 와 ‘합’을 중시한다. ‘화’ 는 서로 오가는 것, ‘합’ 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 사람과 역사의 ‘화’ 와 ‘합’ 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진력하고 싶다.

5. 니가타시 시노다 아키라 (니가타시장)



니가타시는 시나노강과 아가노강이 라고하는 두 줄기의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강을 가지고 있다. 저습지대로 60년 전까지는 허리까지 잠기는 논에서 농작업을 해야 했지만 선인들은 동양 제일의 배수기장을 만들고, 배수로를 파내어 일본 제일의 전답으로 일구어 놓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니가타 시민은 옛날의 물에 대한 기억, 흙의 향기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시키고자, ‘물과 흙의 예술제’를 개최했다. 세계 13개국 61명의 작가와 더불어 많은 참가자들이 연달아 예술작품을 제작해 냈다. 예술제에는 55만명이 방문하여 관광진흥 실현은 물론, 지역에 대한 긍지가 생겨, 시민들은 자신들의 물과 흙의 귀중함을 재인식하고 재발견하였다. 물과 흙의 생활문화가 항구도시나 전원지대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일체감도 형성되었다.

니가타는 에도시대로부터 기타마에부네(北前船)의 최대 기항지로서 번성했던 항구도시이다. 니가타 기생이 부르는 흥타령에는 러시아어의 ‘하라쇼’라는 말이 들어 있을 정도로, 특히 동북아시아와의 교류에 힘쓰고 있어,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와는 45년, 중국 하얼빈과는 30년 이상의 자매도시 협정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 울산과도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과의 교류는 니가타에 새로운 문화를 불러들이는 커다란 계기로 되어 있고, 하얼빈, 하바로프스크, 니가타는 ‘세도시 환경회의’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 강을 통해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이 환경을 함께 소중히 지켜가는 것을 시민교류, 문화교류의 다음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동북아시아를 초월하여 유라시아에 열려진 창구로 되는 것이다. 니가타는 항구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고대로부터의 역사, 물과 흙의 생활 문화를 세계의 새로운 문화와 융합시켜 시민의 활성화에 연결시키고자 한다.

올해 10월 16일, 17일, 니가타에서 APEC 식품안전보장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일본 제일의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니가타로서, 식품안전을 생각하는데 가장 적합한 도시라는 것을 홍보하는 장으로 하고자 한다.

6. 충청남도 구본총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바다를 사이두고 중국과 마주 서 있으며 서해안에서는 대륙과의 문화교류도 왕성하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400km에 이르는 금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였다. 백제 700년 역사의 중심지는 공주와 부여였으며, 문화유산으로서 공주시 석장리의 구석기유적, 부여 송국리의 청동기유적이 있다. 1971년에 발견된 무녕왕릉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교류가 왕성했다는 것이 엿보인다. 충청남도는 조선시대에 유교문화의 본거지로서 많은 학자를 배출한 ‘양반의 고향’, ‘문인의 고향’이며 독립운동가인 유관순도 배출 하고 있다.

백제의 문화재는 전쟁으로 많이 파괴되어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1971년의 무녕왕릉의 발굴과 1993년의 금동대향로의 발굴로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1994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백제문화권을 종합개발하고 올해는 이 17년간의 활동이 집대성하고 있다. 26개의 관광지정지구가 있으며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개발하여 2009년부터는 레저형 기업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서해안의 간척지는 세계 3대 간척지의 하나로 ‘보령머드축제’가 여름의 주요 행사다. 또한, 철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보호하는 한편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원유 유출사고가 있어 생태계에 피해를 주었지만 복구작업으로 지금은 회복하고 있다.

또한 고도(古都) 공주시, 부여군을 중심으로 인류의 공통적 유산을 지킨다는 인식하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백제문화권 형성을 목표로 ‘2010 세계대백제전’을 계기로 테마파크, 문화관광 콘텐츠의 확대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브랜드를 형성하여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1 / 리저널 리포트 테마 1

7. 전라남도 이종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전라남도는 한국내에서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지역이며 아름다운 섬, 긴 리아스식 해안, 개펄 등이 있다. 또 고려청자가 탄생한 지역이기도 하며, 청동기시대 화순의 지석묘(고인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는 긴 역사적 물결을 거친 도시로서 수많은 문화유산의 보존에 노력하고 있다. 몽골의 공격을 받은 삼별초군의 유적지는 1984년부터 복원 작업이 시작되어 2015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진흥책으로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방자치체로서는 처음으로 예술은행을 만들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회화 경매를 실시하는 외에 전라남도립국악단이 목포 시민센터에서 2006년 이후 300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있다. 또한, 도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투어를 실시하여, 문화재 정비의 자원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명량대첩축제는 16세기 후반에 명량의 앞바다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대를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한국군을 축하하는 축제인데 2009년에는 한중일 각국 당사자들의 자손들이 모여 현화를 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문화관광의 명소화 사업에도 진력하고 있다. 화순의 고인돌 유적은 2015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개펄은 2010년에 유네스코의 잠정목록에 게재되었다. 또 2007년에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도내 4지역을 한국형 슬로시티 모델로 개발하고 있어 이것을 그린산업의 메카로서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문화유산은 인류의 공통자산이며, 과거의 특정한 공간과 시간의 복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당시의 갈등과 대항을 강조하지 않고 과거의 전통 속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자료로서도 활용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화해하여 공존공영을 해야 할 것이다.

8. 경주시 이태현 (경주시 부시장)



경주시는 신라 1000년 왕조의 도읍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다. 현재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복원·정비를 통하여 유적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문화산업의 기반확충, 관광시설의 정비와 활용에 의해 관광의 잠재력을 확대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역사문화도시의 공간구조를 재배치하여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2006 ~ 2035년의 30년간 총사업비 3조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라시대의 궁전과 불교유적이 위치한 남산을 잇는 월정교 복원은 올해 말에 완성된다. 황룡사에서는 이미 발굴작업이 개시되어 80m 규모의 목조 9층탑의 복원과 경내 정비가 실시되고 경주의 대표적 전통가옥 마을에서도 노화된 가옥이 정비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반마을인 양동마을은 올해 8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경주에는 네 공항에서 액세스가 아주 편리하다. 또한, 올 11월에 KTX(한국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서울에서 경주까지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 2000년 이후, 낮은 소비지출 등의 영향도 있어 전반적으로 관광산업은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국내관광객수가 침체되는 곤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리조트인 모토단지의 재정비, 국제 이벤트 유치에 위한 컨벤션센터와 한국 전통문화체험단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등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계획추진으로 다양한 문화체험과 국제회의를 실시할 수 있는 국제도시, 지나쳐 가는 관광지로부터 머물고 싶어지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로서 2015년에는 15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9. 아오모리현 미무라 신고 (아오모리현 지사)



아오모리현은 태고로부터 풍요로운 숲에 둘러싸여 있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죠몬(縄文) 문화를 탄생시켰다. 현대에는 지금도 수많은 죠몬 유적이 점재해 있고 국가의 특별사적인 산나이 마루야마 유적에는 대규모 촌락터가 남아있다. 5500년 전에 500~1000명 규모의 당시로 말하면 대도시가 아오모리에 존재하여, 토우나 토기, 석기 등과 같은 다양한 출토품이 풍요롭고, 분쟁 없으며, 서로 배려하던 당시의 생활을 보는 이들에게 전해 준다. 현재, 이 죠몬 유적군의 세계유산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잠정등록중이다.

광대한 세계자연유산인 시라카미 산지도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

또, 아오모리의 재산이라고 하면 인재일 것이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뚜렷한 사계절과 태고로부터 이어지는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수많은 예술가를 길러왔다. 세계적인 판화가인 무나카타 시코, 소설가인 다자이 오사무, 하이쿠, 연극 등 장르를 넘어 활약하고 있으며, 일본 보다 오히려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테라야마 슈지, 울트라맨을 제작한 나리타 도오루, 한 작품에 100만달리의 값이 붙는 나라 요시토모 등 기라성처럼 빛나는 예술가, 아티스트를 배출하였다. 아오모리현에는 지금도 개성 넘치는 문화와 예술을 육성하는 풍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예술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산나이 마루야마유적에 인접해 있는 현립미술관이다. 그 모양은 흰 캠퍼스와도 같으며 장르와 시공을 초월하여, 회화, 연극, 영화, 무도, 무용 등 다양한 예술이 전세계로 소개되고 있다. 미술관 밖은 죠몬 숲에 둘러싸인 필드 박물관으로 되어 있으며, 아오모리의 자연, 생활, 음식, 예술문화가 현외와 해외에서 방문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오모리는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르는 곳이며, 모든 예술의 융합을 향한 아트, 예술을 발신해가는 가운데서 ‘아오모리 투어리즘’을 전개 하고자 한다. 올 12월 4일에 도호쿠 신칸센 전선이 개통 되므로 시속 320km라는 세계 최고속 수준의 신칸센 ‘하야부사’를 이용하여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10. 야마가타현 무라카미 겐이치 (야마가타현 상공관광부 관광교류국장)



야마가타현은 도쿄에서 동북으로 약 300km, 야마가타 신간선으로 2시간반의 거리에 있다. 야마가타현의 특징은 그 무엇이랴 해도 ‘대접의 마음’이다. 영국의 여성 여행가인 이자베라 버드는 자신의 여행기에서 야마가타현에 대해 ‘풍요롭고 미소지우는 대지, 동양의 아르카디아다. 나는 일본을 상기하는 한 그들을 잊을수 없다. 그들의 친절함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에드윈 라이샤워 전 미국 주일대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형태로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다. 야마가타현은 산 너머 저쪽

의 다른 하나의 일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유감스럽지만 나라현과 같이 많은 세계유산이나 문화 유산은 없으나, 현대각지에 특이한 유형및 무형문화유산이 있다. 산악 신앙의 메카이고 대와삼산의 상징인 국보 ‘하구로산 오층탑’은 미쉐린 그린 가이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있어, 국내외로부터 연간 8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분쇼칸’(文翔館)은 영국 르네상스 양식의 벽돌 건축물로서, 일반에 무료 개방되고 있다. 또한, ‘구로카와노 ‘는 500년동안 가스가대사의 후손에 의해 전해져 왔지만, 최근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 예능으로 뉴욕이나 파리에 초대를 받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860년에 개산된 텃샤쿠지 절은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서, 바쇼가 ‘한적함이며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 울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이쿠를 지은 곳인데, 최근에는 엔닌과 장보고 장군으로 한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또한 자오의 수빙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이다.

우리의 과제는 관광객이 잘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외국인관광객은 대만, 한국, 홍콩에서 찾아오고 있지만, 향후는 중국이나 스키 붐이 불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찾아와 주길 바란다. 야마가타의 관광자원을 정비하여, 야마가타 특유의 관광을 국내관광객 유치와 해외관광객 유치의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하며, 살기 좋고, 찾아와도 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여, 매력 있는 관광교류를 할 수 있는 야마가타의 확립에 노력하고자 한다.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1 / 리저널 리포트 테마 1

11. 베나레스시 SINGH, Kaushalendra (베나레스시장)



베나레스는 불교, 힌두교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다. 면적은 79.79 km², 2010년의 인구는 120 만명으로 갠지스강변에 위치하며 인도문화의 수도로도 불려진다. 도처에 유니크한 건축·예술·종교가 표현되어 있다.

이 도시의 풍부한 유산은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리버 프론트 유산지구는 6.8km 에 걸친 85 개의 가트가 초생달 모양을 하고 있는 갠지스강변에 펼쳐져 있다. 중핵유산지역은 올드 시티 유산구역에 위치하며 유명한 비슈와나트사원 외에 70 곳의 중요한 사원, 불각, 절과 신사가 있다. 그리고 사르나트유산구역

은 도시의 북쪽에 위치한다. 여기는 불타가 최초의 설교를 한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유명한 기념물은 아소카왕의 석주와 다메크탑이 있다. 또, 베나레스시에는 일본, 한국, 태국의 사원도 있으며 연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어 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학습의 장으로서 베나레스 힌두대학, Mahatma Gandhi Kashi Vidyapeeth 대학, 산스크리트 문학연구로 유명한 산스크리트 대학, 불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티벳 중앙연구소가 있다.

이 도시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서 인구폭발, 급속한 도시화가 있으며, 교통체증 등 강변지역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들은 전략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 기존 서비스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149 억루피를 투입하여 전체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물처리, 상수도공급, 위생, 고형폐기물관리 와 물이 보전하였는데, 이 사업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또한 에코 투어리즘의 추진을 계획하여 낡은 건물, 연못, 요새를 개축하고 요가와 영적지식,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자연요법 네츄로파시도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2. 옥야카르타특별주 하멩꾸브워노 10 세 (옥야카르타주 술탄)



옥야카르타는 나라와 마찬가지로 고도(古都)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적 유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옥야카르타는 과거에 전쟁 시대와 변영의 시대가 있었으나 거침없이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

옥야카르타는 관광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동아시아를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에는 유니크한 사회문화조건과 관광 자산으로 되는 자연이 있다. 유산에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둘 다 포함되는데 각곳, 각 지역사회의 기억을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 추세 속에서 문화유산 보존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관광업은 다양한 기금을 모아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개발을 실시하고 정책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실현해 가야 한다. 옥야카르타는 이에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이었다. 69 곳의 다양한 유산이 존재하고 다양한 문화, 숨쉬고있는 문화가 옥야카르타에는 존재하고있어 이들은 커뮤니티 전체에 커다란 편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앞으로도 이 유산을 유지하고 문화관광을 보전해 가야 한다.

우리는 일본, 오스트리아, 미국, 태국, 한국, 이집트, 러시아 등 7 개국과 자매 결연을 맺고 향후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에는 문화와 교육이 열쇠가 된다. 자매도시, 자매주 관계를 더욱 확대시켜 문화유산과 관광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문화유산 보전과 관광업 개발은 경제창출, 고용창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라는 뜻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옥야카르타의 관광시장에는 아직도 많은 여지가 있다. 앞으로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광업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또한, 관광업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현재의 7 개국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나라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3. 서산시 이완섭 (서산시 부시장)



서산시는 내륙 깊이 들어선 만을 통해 일찍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하여 독특한 내포문화를 꽃피웠고, 불교와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등 외국 문물을 선두적으로 유입하여 내륙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그 역사적 역량이 면면이 전해 내려와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국토의 중심, 교통의 요충지로 수도 서울의 남서쪽 125km에 위치하여 차로 1시간대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하고 중국과 국내 최단거리 서산대산항이 있으며, 세계 5위의 대산석유화학 산업단지과 연간 20만대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성연지곡지구 자동차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국가경제의 핵심지역

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구 16만명의 도농복합 도시이다.

서산시는 많은 천혜의 자연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소중하게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첫째, 1억㎡의 천수만 간척지에서 수출농산물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최고 품질의 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으며, 둘째, 국책사업으로 내포문화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정체성 확립과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국내 최대 세계철새 도래지 천수만에 세계 철새축제 개최, 버드랜드 조성 등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고 있으며, 넷째,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천수만과 가로림만에 대규모 수산종묘 방류사업 등 청정해안으로 보존하여 어업을 발전시키면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다섯째, 3억톤의 국내 최대 담수자원인 부남호, 간월호, 대호지를 보존하여 자원화하면서 국제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하고, 여섯째, 국내 최대 한우개량사업소 목장에 한우테마파크 조성하고 서산한우 브랜드 개발을 통해 축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국제항로 개설 등 서산대산항을 활성화시키고, 서산공항 건설과 고속도로 확충을 추진하는 등 관광진흥의 동맥이 되는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서산시는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종합발전전략을 바탕으로 동남부는 관광문화권역으로, 서남부는 생태권역으로, 중앙부는 주거행정권역으로 북부는 산업개발권역으로 설정하여 권역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서산시는 천혜의 자연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하고, 하늘, 땅, 바다를 아우르는 입체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문화생태관광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 시 비전인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건설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14. 부여군 이 용우 (부여군 군수)



부여는 충청남도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인구는 76,000명, 면적은 624km²이다. 백제의 6대 왕이 123년간에 걸쳐 수도를 두었던 고도(古都)이며, 5층 석탑, 관세음보살 등 네개의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한 수많은 지정문화재가 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은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최된다.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벤트가 부여 각지에서 실시되어 이미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퍼레이드는 백제의 6대 왕을 비롯

하여 백제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실시되고, 수상공연에서는 백마강을 이용하여 배가 무대를 드나드는 연출을 하고 있다. 또, 뮤지컬, 연극, 워터 스크린, 레이저 쇼, 불꽃대회 등, 첨단 테크니컬 시스템에 의한 종합예술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400년 전에 국경을 넘어 사랑을 키워온 백제의 서동왕자와 신라 선화공주의 야간 퍼레이드는 매우 인기가 있다.

부여 고도(古都) 보존사업에서는 아이덴티티의 확립과 역사적인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여 활성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상으로서 자랑스럽고 쾌적한 전원도시형의 고도(古都)를 복원하여, 백제 내음 그윽한 고도(古都), 휴먼 스케일의 고도(古都)라는 목표를 내세워 역사적 신성함에 기초한 고도(古都)의 복원, 창조적인 복원·재생, 역사문화학원, 또 역사문화의 경관관리 등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부여는 강변문화의 중심지였던 백마강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인 성곽도시이며 올해 초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될 것이 확정되었다. 부여군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한눈으로 볼수있는 종합역사지구를 다섯개의 지구로 나누어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있다. 123년간 계속된 고도(古都) 부여는 동아시아 문명교류의 최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古都)보존사업과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역사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고도(古都)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해 가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후손들의 사명이다.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1 / 리저널 리포트 테마 1

15. 후쿠이현 니시카와 잇세이 (후쿠이현 지사)



후쿠이현은 일본의 거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일본해에 면하고 있다. 예로부터 개방되어 있어 6 세기에는 고구려의 사절이, 7 세기 후반부터는 신라의 사절이 찾아와, 여기로부터 나라와 교토로 향했다. 헤이조쿄 유적터에서 발굴된 목간에는 후쿠이현에서 여러가지 식품을 나라까지 보냈다고 적혀져 있다. 지금도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게가 11 월쯤 부터 잡힌다.

후쿠이현은 47 도도부현 가운데 인구당 신사와 절간 수가 가장 많다. 후쿠이현의 오바마는 ‘바다가 있는 나라(奈良)’ 라고 불리고 있으며, 나라시와도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먼 옛날, 후쿠이현의 오바마에서 갓난아기가 큰 독수리에

게 물려가 도다이지 절의 큰 삼나무에 버려졌는데 그 아기가 성장하여 훗날 도다이지 절의 초대 주직인 로벤 승정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다.

지방정부가 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첫째로, 지방에 남겨진 문화재를 개발사업으로부터 지키고 보존하며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전국시대(15 ~ 16 세기)의 이치조다니 아사쿠라씨 유적이 그 일례다. 후쿠이현에는 당시 전문직원이 없었기에 국립문화재기구 나라문화재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발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둘째는 지방에 남겨진 문화재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후쿠이현의 농촌에는 훌륭한 회반죽 칠한 벽에 맞배지붕 형식을 한 농가나 도조(土蔵·일본 전통 건축양식중의 하나로서 외벽에 석회 등을 칠한 건물, 대개는 창고)가 있다. 이런 문화재들은 내버려 두면 점차 없어지므로 인정제도를 마련하여 보수 보존하고 있으며, 현재 700 채 남짓한 주택들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향토의 위인 발굴에도 힘써 후쿠이현에서는 메이지 정부의 정책이었던 유리 키미마사가 집필한 ‘오개조의 서약문’의 초고와 식민지시대에 아시아의 각성을 제창했던 오카쿠라 덴신의 ‘차의 책’의 초판본도 구입하였다.

셋째로는 주민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것이다. 아사쿠라 유적이 있는 지역에서는 유적의 복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재 피해 복원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과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6. 시마네현 미조구치 젠베 (시마네현 지사)



시마네에는 일찍부터 대륙의 문화가 들어왔다. 기원전 3 세기경에 한반도에서 규슈를 경유하여 벼농사 기술이 시마네 등지에도 전해졌다고 한다.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시마네지방은 왕조라고도 할만한 세력이 존재하게 되었다. 고진다니 유적에서는 동검이 358 개나 출토되었으며 일본에서 발견된 동검의 절반 이상이 모두 이곳에서 발견되었다. 동탁은 대륙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 상당수가 시마네의 이즈모에서 발견되고 있다.

나라에서는 헤이조천도 1300 년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헤이조쿄가 710 년, ‘고지키’ 라는 역사서가 그 2 년 후인 712 년에 완성되었다. ‘고지키’ 의 첫 부분은 신화로 구성되어 있어 그 3 분의 1 은 시마네의 이즈모를 무대로 하고 있다. 그 하나인 ‘나라(國) 양도 신화’ 는 이즈모의 신이 나라를 양도하는 대신 자기의 주거지로서 이즈모 오야시로를 천황가문의 선조들에게 조영케 했다는 신화다. 이즈모 오야시로는 ‘인연을 맺어주는 신’ 으로 유명한 일본의 오랜 신사의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인연’ 을 기원하며 찾아온다. 시마네지방의 소중한 문화·역사유산이라 할 수 있다.

중세에 들어서서 이시미 긴잔이 등장하여 2007 년에는 산업유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있다. 16 세기경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정련법이 들어와 그로 인해 은 생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17 세기 초엽에는 세계의 3 분의 1 에 해당하는 은을 산출하였다. 이시미 긴잔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숲의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숲으로 은을 정련하고 벌채한 후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 왔다는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과 조화된 산업유산이라는 것이 평가되어 세계유산에 등재되게 된 것이다. 문화유산도 역사의 변천 속에서 자연과 조화된 형태로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시마네현도 고대, 중세의 유적을 소중히 보존하면서 관광정책에도 활용하고 있다.

코멘트 1 후쿠시마현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부지사)



어제 두 분의 일본인 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그들의 크로스 커플링 이론은 오늘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닐까? 서로 다른 것을 융합시키거나 혹은 교류시키기 위해서는 매체인 팔라뎀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오늘의 지방정부회합은 바로 그 매체이며 또 교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후쿠시마현과의 구체적인 교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나라시와 후쿠시마현 고오리야마시와의 교류다. 40년 가까이 자매도시제휴를 맺고 있는데 올 여름 나라시장이 고리야마 우네메축제에 참가했다. 우네메 전설이 양측의 인연을 맺어준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나라 고후쿠지 절의 주지승과 야쿠시지의 관주가 2주일 전에 후쿠시마의 아이즈를 방문하였다. 이것은 1200년 거슬러 올라가 고후쿠지에서 수행하던 도쿠이치라는 법사가 후쿠시마의 아이즈에 불교를 널리 전파한 것이 인연이 된 것이다. 오늘 회합이 이러한 옛날의 인연을 재확인하는 장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구축해 갈 미래로 연결되는 인연을 새롭게 맺어주는 장이었으면 한다. 그러한 장으로서 이 회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나의 발언을 마치겠다.

코멘트 2 고치현 오자키 마사나오 (고치현 지사)



우리는 안후이성, 전라남도와는 옛날부터 우호협정을 맺고 있으며 상호교류도 활발하다. 이 쌍방향 우호협력 관계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라는 다각적인 회합으로 발전해 가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것이다. 조금 전에 한국 여러분, 중국 여러분, 일본 여러분들로부터 각자가 보유하는 문화유산을 소중한 보존해 가고, 또한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발전으로 연결시켜 가고 싶다는 각각의 시책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어려운 판단이 요구되지만 이것은 실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각의 활동은 대단히 참고가 되었다. 나는 다소 우리 현에 부합하는 새로운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각각의 매력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지만, 국제관광에 있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다. 그것은 거리와 비용이다. 원격지까지 발걸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가운데, 국제관광을 하는 여행객들은 가능한 한 틀림없이 즐거운 거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려고 할 것이다. 가면 반드시 즐거운 거라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해 갈지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지금 다방면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영상의 힘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영화가 일본에서 대히트 하고 있다. 또 한국 영화나 TV 드라마도 대히트를 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 또, 한국이나 중국의 영화촬영이 일본에서 있을 때는 그 촬영지에 한국·중국에서 많은 여행객이 일본에 온다는 결과도 나왔다. 영상을 통해 그 매력을 확인하고 왕래한다는 것이다. 지금 일본의 영상이 한국과 중국에서 방영되어 그 반대 상황도 있다는 대단히 바람직한 환경이 형성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영상 콘텐츠의 왕래, 상호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가는 것이 바로 국제관광의 뒷받침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또, 우리 고치현은 역사상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카모토 료마의 출신지다. 지금 일본에서는 사카모토 료마를 주인공으로 한 대하 드라마 '료마텐'이 대단히 인기가 있는데, '료마텐'은 다른 대하 드라마와 더불어 대만, 한국, 그리고 아마 중국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이 드라마를 보신 여러분이라면 꼭 한번 이 드라마의 무대인 고치현을 찾아와 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홍보를 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다.

총괄 무토 히로시 (관광청차장)



이번의 테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활용의 양립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중앙정부나 계획적인 보존·보호가 제일이고 그를 전제로 개발·활용을 도모해 간다는 것이 강조되었던 것 같다. 대략 2000년대 이후, 각 지방정부가 모두 강력하게 관광개발을 진척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보존·보호를 의식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활용에 대해서는 각 지방정부 모두 인식이 높았던 것을 알았다.

또, 인도의 프레젠테이션부터 제 2 세션이 시작되었는데, 인도에서 나라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통해 고대에 교류가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광교류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시아의 교류가 서로 Win-Win 관계가 되어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양저우시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화합공생'이라는 말이 이번 관광과 문화제의 활용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는 인상을 가졌다.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2 / 리저널 리포트 테마 2 개요

테마 2 : ‘차세대 교류’

리저널 리포트 테마 2에서는 도쿠나가 타모쓰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소장에 의한 기조강연에 이어 참가지방 정부로부터 ‘청소년의 국제 교류에 의한 지금까지의 활동과 향후의 국경을 초월한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의 촉진’에 대한 리포트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본 테마에 대해 국제적인 시점에서 출발하여 견지하고 고찰한 과제에 대해 각 지방정부로부터 발표가 있었으며, 회의 진행자에 의해 회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 실시일시 : 2010년 10월 7일(목) 14:00 ~ 16:40
- 참가자 : 참가지방정부, 실행위원회, 일본국 총무성, 일본국 외무성, 참가국 재 오사카 총영사관 외
- 회장 : 나라현 신공회당 2F 회의실 3·4
- 형식 : 기조강연, 지방정부 프레젠테이션 및 게스트 스피커가 참가하여 디스커션. 2부 구성
- 참가지방정부 : 4 지방정부
 - 한국 : 경상북도
 - 일본 : 나라현, 구마모토현, 가시하라시
- 퍼실리테이터 : 다니노 사쿠타로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실행위원회 부위원장)
- 기조강연자 : 도쿠나가 타모쓰 (국립교육정책연구소장)
- 게스트 스피커 :
 - 안자이 유키치로 (케이오기주쿠 학사고문, 전 케이오기주쿠장, 문부과학성 참여)
 - 이토 타다미치 (나라현립대학 학장)
 - 호리바 아쓰시 (주식회사 호리바제작소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
- 차례 :

개회
기조강연
휴식
Session I (지방정부① ② 리저널 리포트의 발표)
디스커션
Session II (지방정부③ ④ 리저널 리포트의 발표)
디스커션
회의 진행자에 의한 회의 내용 정리
폐회

- 발표순 :
 - Session I : ①구마모토현 (일본) ②가시하라시 (일본)
 - Session II : ③경상북도 (한국) ④나라현 (일본)



지금까지 일본의 인재육성, 고용 관련 시책은 국내를 전제로 전개되어 왔으나,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체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아시아 지역 경제의 일체적 발전을 염두에 둔 교육이 필요해 질 것이다. 먼저 향후의 대학교육은 동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전문성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초월해 시행해야 하는 교육을 대학간의 국제적 연계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서로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도 필요하다. 언어, 종교, 민족, 제도, 습관, 문화 등에 있어 아시아 각 국가별로 다양성과 복잡성이 존재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존중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성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인재 육성의 주체인 대학에서는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각국이 국제표준을 준용하는 학부, 대학원 교육을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학위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고, 그 내용과 습득하는 지식, 기술을 외부에 공표하며,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각 대학별 교육 수준 질을 보증할 수 있는 대학평가 등의 시행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제도는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제도이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0년 무렵부터 WTO에 고등교육 서비스의 자유화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과 유럽이 연계하여, 각국의 대학제도를 존중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유네스코, OECD에서 채택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1999년에 ‘볼로냐 선언’을 채택하여 유럽의 대학제도 공통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에라스무스 문두스’라는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각국 대학과의 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작년(2009년) 10월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아시아 지역 대학의 교육 수준 보증, 학점 교환, 성적평가, 교류프로그램을 공통화하기 위한 유식자회의의 설치를 제안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교육 수준이 보증된 대학간 교류의 기틀을 구축하는데 합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에는 ‘한중일 대학간 교류·연계 추진회의’가 발족되어, ‘캠퍼스 아시아’를 구상하여 교육 수준이 보증된 학위 수여와 학점 교환 등, 한중일 대학간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이를 ASEAN 전체 레벨로까지 확대해 가고자 한다.

기업이 우수한 유학생을 인턴으로 받아들여, 이들이 일본어와 일본의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귀국후에도 각자의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실천적 활동으로, 이미 올해부터 대학에서의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대학생의 해외 인턴십에 대해서도 검토중에 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기준 및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과 대학생의 성장기 적인 교류나 생활, 근로 체험 등의 구체적인 활동 시행은 지방정부와 각 대학, 그리고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상호간 이해 증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종교·문화시설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다양한 사회 배경 및 문화에 대해 경의를 지니게 될 수 있으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도 깊게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지역은 공통된 문화 예술적 바탕이 존재해, 도자기 하나를 보더라도 한국, 중국, 베트남은 동일한 전통 및 역사를 지니고 있다. 도예가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을 한곳에 모아 도자기 관련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각국의 문화 예술 활동과 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일본 국내에서는 학부, 대학원의 공동설치를 제도화하는 것 외에도, 특별히 우수한 연구기관이 전국 공동 기관으로서 타 대학 학생과 교원을 받아들여 함께 연구를 하는 체제도 구축해 왔다. 예를 들어 ‘슈퍼 가미오칸데(일본 양자붕괴 실험 시설)’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시설로 이곳의 연구원중 60% 이상이 외국인이다. 우수한 연구, 우수한 교육활동이 있는 곳에는 각국으로부터 인재가 모이는 법이다. 이러한 시도를 국제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와 같이 동아시아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동아시아 대학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연구 참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교류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아시아 각국이 지닌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시아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나고야대학에서는 베트남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법제도 정비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일 국립예술대학간에도 해마다 다양한 예술제가 개최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도를 더욱 활발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학 관계자만으로, 혹은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정부만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2 / 리저널 리포트 테마 2

1. 구마모토현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 지사)



나는 고등학생 시절 공부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지만 소를 기르고 싶다, 정치가가 되고 싶다,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등, 소중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후에는 농협 직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소를 기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연수생으로 21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 농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중노동에 시달려 꿈도 잃어가고 있을 때,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학과연수를 받은 것이 전기가 되었다. 농작업에 비하면 공부는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학생을 위한 SAP 시험은 불합격이었지만 의욕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

어야 한다고 응원해 주는 선생님이 있어 네브래스카 대학 농학부에 입학하게 되었다. 열심히 공부하여 스트레이트 A 였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와서 수업료가 면제되었다. 그리고 28 살 때 또다시 옛날의 꿈을 잊지 못해 정치를 공부하고자 하버드 대학 정치학 박사코스에 들어갔다. 정치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을 박사과정에 장학금을 지급하여 넣어 주는 대담함, 또 저명한 교수님들이 가난한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것에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지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미국 몬태나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우연히 양측의 청소년들이 같은 날 나를 방문했다. 미국, 중국, 일본의 어린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오가는 교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기 띤 교류모습을 보며 좀더 일찍 국제교류의 기회를 주면 어떨까하고 생각했다. 또, '구마모토 지수칸 구상'에서는 구마모토의 사립고등학교 학생을 유학생으로서 해외의 실력교에 파견할 생각이다.

나는 여러 학교를 돌며 2 만명 가까운 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경험과 인생의 가능성이 무한대라는 것, 꿈을 향해 한걸음 내딛는 용기를 가지라고 역설해 왔다. 구마모토의 청소년들이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2. 가시하라시 모리시타 유타카 (가시하라시장)



가시하라시의 국제적인 청소년교류는 가시하라시의 역사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가시하라시의 야마토야기역 앞의 대형 릴리프에는 새로운 수도·후지와라쿄 건설에 불타는 젊은이들의 모습과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젊은이, 건당사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청년이여, 황야로 가라' '청년이여, 역경에 맞서라' 는 가시하라시의 메시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 가시하라는 실크로드의 동쪽 종착점으로서 페르시아제 유리그릇이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우리들이 평소 걷고 있는 길은 멀리 로마로까지 연

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얼마나 장대하고 낭만 넘치는 이야기인가? 젊은이가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용기를 잃고 새로운 세계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잃는다면 그 도시, 그 국가는 틀림없이 쇠퇴해 갈 것이다.

가시하라시의 국제교류사업의 예산총액은 약 6000 만엔으로 일반회계의 0.15% 를 차지한다. 이것은 동 규모 자치체의 몇배에 상당하는 액수다. 특징적인 활동으로서 탁아소에서의 영어교실 실시, 유치원·초등학교에의 이문화교류 강사 파견이 있다. 이것은 인격형성 시기에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이다. 또, 일본어교실에는 항상 80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재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일본에 대해 알리고자 NPO 단체가 시작한 것을 가시하라시가 이어받아 시작한지 15 년이 경과한 지금은 나라현 국제교류의 센터적인 존재로 되어 있다.

기타 우호도시인 중국 뤼양시와의 중고생 파견·영입,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중고생 영입 등을 통해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뱃치시와는 도시계획, 관광진흥, 문화재보존 등 각 분야에서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며 초중학교에서의 위생식 보급과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시책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

가시하라시는 이른바 일본의 국제교류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다. 21 세기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젊은이가 꿈과 이상을 품고 세계로 비상하며,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문하여 교류해 가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3. 경상북도 손 세주 (경상북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최근에 다민족·다문화 사회가 형성되어 국제협력과 상호의존 관계가 깊어지고 인적·물적자원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청소년들의 국제감각을 키우고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교류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청소년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경상북도의 역사, 문화, 정책 등을 해외에 소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문화, 관습, 교육기관 등을 견학하여 직접 경험하는 것은 향후의 자신의 진로 선택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경상

북도에서는 현재 세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차세대 글로벌 해외연수’에서는 우수한 고등학생을 유럽과 아시아 선진지역에 파견한다.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주관 국제청소년교류사업’은 한중일의 청소년들의 상호간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 이해 촉진을 위한 것이며, 전통 문화 및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경상북도, 시마내현, 닝샤후이족자치구의 세 지역이 순회 개최한다. ‘글로벌 리더쉽 육성’에서는 재 러시아 한국인 4세의 모국연수 사업과 청소년해외문화탐방, 한국과 중국의 황사방지를 위한 식림사업 등을 실시한다.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고 국제적인 감각, 견문을 넓히는 사업이다.

도내의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는 포항시와 조에즈시와의 상호 홈스테이나 금천시와 나나오시의 청소년국제문화교류사업을 통한 교류, 의성군과 중국 함양시의 교사·학생간의 정기적인 방문 등이 있다. 국제간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견문을 넓히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라고 불리는 만큼,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국제교류의 장을 더욱 확대시켜 가고자 한다. 다만, 현황에서는 한번뿐이고 견학 중심으로 끝나는 일이 많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결실 많은 프로젝트를 발굴해 가는 것이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4. 나라현 구보타 오사무 (나라현 부지사)



우리들의 제안은 지성과 행동력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의 육성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인 시야, 지식, 스킬과 동아시아적인 가치관, 문화성을 지닌 인재, 국제화에 대응하면서 아시아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상상력, 논리성을 가진 인재, 자국과 지역을 서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여 대화할 수 있는 표현력,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키워드로서는 지적기반의 정비, 신뢰·협력관계의 강화, 공유가치, 공동의식의 양성을 들 수 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기본으로 한 ‘양자’ 관계에서 ‘영지의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 종교, 언어, 역사, 문화적배경, 전통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리버럴 아츠를 확립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장을 만들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지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의 장’ 정비를 검토하고 싶다. 동아시아 대학간의 다각적인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동아시아형의 리버럴 아츠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므로 우선은 파일럿적인 프로젝트로서 ‘동아시아 서머스쿨’ 구상을 나라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제안은 처음에 발언하신 도쿠나가 소장님의 문제 제기에도 어느 정도 부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문점이 한가지 있다. 아시아 각국은 통화위기 이래 국내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어서 그것은 지역 내 라기보다는 더욱 국제적인 기준을 의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위안도 지역내 뿐만 아니라, 구미에서도 강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아시아에서 통용되는 인재는 아시아만의 특별한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는가?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세계체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즉, 이러한 인재를 양성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활약할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남겨진 과제가 아닐까? 이 기회에 의견을 들었으면 한다.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2 / 리저널 리포트 테마 2

디스커션



안자이 유이치로
케이오기주쿠 학사고문 전 케이오기
주쿠 대학 총장 문부과학성 고문



이토 다다미치
나라현립대학 총장



호리바 아쓰시
주식회사 호리바제작소
대표이사회장 겸 사장



엔도 야스히코
(재) 지방재무협회 이사장



기무라 요코
(재) 자치체국제화협회 이사장



시노자와 교스케
(재) 자본시장연구회 이사장



하야시 야스오
(독)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장

디스커션 1

디스커션 1에서는 도쿠나가 다모쓰씨의 기조강연 및 구마모토현과 가시하라시의 발표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국제 교류에 관한 시책과 과제·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호리바씨는 교토에 본사를 두고, 대규모 해외 오피레이션을 실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에는 스포츠·예술면에서 우수한 젊은이가 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사회의 '경쟁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추세 등으로 인해, 학술·면학의 세계에서도 엘리트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불충분한 것은 아닌지 라는 염려와, 앞으로는 리더쉽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어학력이 중요해질 것이며, 세계의 여러 규정 및 규약 등이 정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여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 전체의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단, 경제계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발전 방안을 실천해 갈 수 있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안자이씨는 지역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일본에서는 유학 등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젊은이가 늘고 있는 반면,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교류를 상당히 촉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서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통된 이해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나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토씨는 동아시아 지방정부회담에서의 동아시아 라는 관점과 국제적인 교류라는 의미에서의 이문화 접촉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한편, 로컬화와 지역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2003년 실시된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아시아 각국의 젊은이는 자국민으로서의 의식은 대체로 높은 반면, 아시아인으로서의 의식은 나라별로 격차가 컸다. 앞으로 아시아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통과제를 찾아내 간다면 공통된 국제감각을 지니고 교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 육성은 국가 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국제교류에 기여하는 역할도 매우 크며, 또 앞으로는 다국간, 다각적인 국제교류가 증가하므로 그러한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다. 국제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직접 교류하며 얻는 체험과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므로, 본 회합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또, JETRO의 하야시 이사장은 워싱턴과 뉴욕에서 실제로 비즈니스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간, 국민간에 건설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지방 차원의 교류야말로 양국간의 관계를 가장 돈독히 할 수 있으며, 양국의 장래를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피력하였다. 지방 차원에서의 교류가 젊은이들의 장래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점에서, 각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혜를 동원하여 자치단체간의 관계를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치체국제화협회의 기무라씨는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시책에 계속적으로 진력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는 외국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지에 관한 논의를 민간차원에서 차세대로 계속해서 전해야 하며, 또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디스커션 2

디스커션 2에서는 경상북도와 나라현의 발표를 포함하여, 본 세션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우선 다니노씨는 나라현이 발언한 ‘국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가치·기준이 세계의 그것과 양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알려나가면 좋을지, 무엇보다 동아시아적인 가치·기준이라는 것이 있는지?’ 라는 의문에 대해, 분명 동아시아적인 가치·기준은 존재하지만 최근의 회사법, 회계 기준의 국제화, 내부 통제 등이 모두 구미주도적이며, 동아시아적인 기준을 알리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라현이 제창하는 ‘동아시아·서머스쿨’의 실질적인 실현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자이씨가 찬의를 표명하며, 앞으로 젊은세대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시아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정치, 역사문화 면에서의 교류는 물론, 단지 ‘만나서 좋았다’로 그치는 교류가 아닌, 참가자 자신의 인생에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될만한 서머스쿨을 실시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동아시아·서머스쿨’에 대해서는 다른 패널리스트들도 찬의와 기대를 표명했다. 또 서머스쿨의 커리큘럼 중 하나로, 한중일 각국의 언어 교육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라현 구보타 부지사로부터 제시되었다.

호리바씨는 서머스쿨과 같은 새로운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나 자선단체에서 실시해온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활동에 대해 검증은 한 후, 국가나 아시아와 같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큰 틀 안에서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화 사회 속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확고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필요해 지므로, 초중등학교에서 국가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정확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전 일본 대장성 사무차관인 시노자와씨는 국제화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급무로 여겨지고 있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일본인과 아시아인의 육성이 필요하며, 작은 노력일지라도 지방정부측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의 역사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전 자치성 사무차관인 엔도씨는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지금까지 우호도시체휴 등을 통해 단선적인 교류를 지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단면적인 교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연대감을 얼마나 깊게 해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는 차세대 젊은이들의 교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방정부간에도 솔직한 대화와 정보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것이 향후의 동아시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마모토현 가바시마지사는 구마모토현의 국제교류 시책에 대해 소개를 했다. 구마모토현은 중국의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우호결연을 맺은 후 28년 동안 교류를 지속해 온 결과, 두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그 성과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남기는 형태로 나타났다. ‘지속은 힘이다’라는 말처럼 국제교류는 다양한 정치적 국면을 극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경제계의 지원도 교류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상북도 손세주 국제관계자문대사는 아시아 각국이 서로 열린 마음으로 효율적·성공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기 위해 경제·문화·윤리적인 의미에서도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다. 또한 차세대를 이어나갈 청소년들이 꿈을 지니고, 그 꿈을 서로 교환하며, 모두의 사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꿈을 이야기 하며, 서로의 꿈을 이해하고, 감성을 키워나가 상승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서머스쿨’에서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이런 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구보타 지사가 인재를 육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유동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서로가 지닌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교류를 진전시켜 나가는 첫걸음이고, 이를 위해 민간의 협력 및 공통된 역사·가치관을 창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Summary of Regional Report Theme-2 / 리저널 리포트 테마 2

총괄 다니노 사쿠타로



동아시아의 차세대 교류의 중요성을 둘러싸고 매우 활발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인이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장래를 생각하면, 젊은 세대들간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장래에 가교를 놓는 것은 젊은이들의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아시아에 있어 기대할만한 수준의 상호 신뢰관계, 친근감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교류’가 있어야만 ‘상호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 상호이해가 있어야만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한 군비로 국가를 지키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연한 신뢰관계의 구축은 단지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더욱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번의 큰 전쟁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1963년 독일과 프랑스 간에 엘리제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의 핵심이 되는 것이 청소년 교류로, 양국간에는 연간 무려 14만명의 청소년이 교류를 하고 있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도 아베 정권이던 2007년, 동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들을 매년 6000명 초청하여 일본의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계획’을 시작했다. 중국이 가장 많아 연간 4000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후 중국도 1000명의 일본 고등학생을 매년 초청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교류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부 더해도 14만명은 되지 않는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폴란드 간에도 이와 같은 교류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상하이 엑스포에 1000명의 청소년을 초청하겠다고 하여, 이들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중일관계의 영향으로 출발 이틀 전에 갑자기 계획을 취소했다. 이토록 중요한 청소년 교류에까지 정치가 영향을 미친 점을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유럽 통일의 오랜 발걸음 속에서 이를 움직여 온 것은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이념과 리더쉽이며, 엘리제조약은 드골 장군과 아데나워 수상이 조인한 문서다. 유감스럽지만 동아시아는 이런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봐 왔기에, 유럽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까지 유럽이 걸어 온 역사에서 동아시아가 배울 점은 매우 많다.

‘동아시아 서머스쿨’과 동아시아 대학의 컨소시엄 실시도 중요하지만, 호리바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지금까지 실시해 온 여러가지 일들을 정확히 검증하여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결시켜 가야 한다. 내년부터는 나라현장, 공동성명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등에 대해 착실히 준비해 가는 일이 바로 나라현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 옛날 일본이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던 역사는 젊은이들간 교류의 원점이 될테니, 나라의 특성을 살린 학교 교류, 서머스쿨을 시행해 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젊은이들이 내향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전에 근무했던 외무성에서조차도 그러한 젊은이들이 없지는 않다고들 한다. 이 점에서 이웃나라인 한국, 중국은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에도 좋은 점은 많다. ‘뉴스위크’의 조사에 의하면, 인구 5000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일본이라는 것이다. 치안과 위생면에서 최상위이며, 식생활도 풍요롭고 세계에 자랑할만한 첨단기술도 많다. 일본도 희망이 없다고만 할 수 없다. 좀 더 분발하여 좋은 의미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불평을 그만두어, 당당하게 동아시아와의 교류에 참여 하고자 한다.

영어실력에 대한 이야기도 호리바씨로부터 있었는데, 중국의 도심부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수업을 받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이제서야 이런 시책을 준비하는 듯 하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국어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영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국어를 등한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일본의 젊은이가 뉴욕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Oh, my goodness! My poor boy, how are you?’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배우대로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대답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일본인에 대해서 이런 농담이 미국에서 돌고 있다는 점은 분하지 않은가. 또한 일본의 젊은이들이 더욱 의견 전달 능력과 토론풍을 기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The First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제1회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설립기념강연회





나는 이 동아시아지방정부회담이 커다란 의의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소련 붕괴후 미국의 아스펜에서 노벨상 수상자와 현직 각료가 모여 냉전 후의 세계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가 있었다. 그 세미나에서는 지금 우리들은 커다란 전환기의 벽두에 서 있으며 앞으로는 주권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지역공동체, 국제기관, 기업, 개인이 세계의 정치를 움직여 가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일치했다. IT 덕분에 개인이 힘을 가지게 되어 커뮤니티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단, 수백만이라는 검색 결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골라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거기서 답을 추려내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경험이다.

IT는 스스로의 경험이 있어야만 잘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즉, 전통과 새로운 기술이 합쳐졌을 때 그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전통의 힘이 강하고 전통있는 점포도 많다. 세계의 창업 200년 이상 기업 5500사 중 56%를 일본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경제상으로도 상호부조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림으로써 더욱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 전 선진국은 세계 부의 64%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신흥국의 약진으로 2014년에는 입장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에서 아시아의 약진이 현저한데 현재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는 모두 인구가 많다. 경제의 세계에서는 잠재성장율은 인구 신장율 + 생산성 신장율로 나타나는데, IT의 보급으로 인해 생산성 신장율이 평준화 되어진 지금 잠재성장율을 좌우하는 것은 인구 신장율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금형 제조 등의 기술력이 높아 압도적으로 세계 제일의 물품 제조국가였으나 IT로 인해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면 어느 나라에서나 별 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글로벌 러닝의 보급으로 세계 기술력의 차이가 점점 좁혀져 왔다. 그 결과로서 인구신장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잠재성장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다양성의 포섭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다양성을 도입해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나라의 강함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은 세계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

성장의 패러다임이 이렇게까지 변화한 배경에는 환경의 격변이 있다. 인류는 유사 이래 19세기 초두까지 6000~7000년 걸쳐서 10억까지 인구를 증가시켰지만 놀라운 것은 1960년부터 불과 50년 동안 30억이나 증가되었다는 것이다. 이 급격한 변화는 환경을 현저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라 룰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이 룰의 변경은 사회,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난관 타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다. 이미 EU는 27개국을 통합체로 하는 과정에서 몇 천개나 되는 룰을 만들어 왔고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룰 만들기에 뛰어나다. 그러나 단일민족으로 지금까지 룰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일본은 이 점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이번 동아시아지방정부회담이라는 기회가 주어짐으로서 참가자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공명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나는 이 회합이 일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평화다. 동아시아의 정세는 기본적으로 냉전시와 구조는 같기 때문에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해 가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신뢰를 조금씩 쌓아감으로써 서로의 차이를 메우고 동아시아 전체가 민주화 방향으로 수렴되었을 때 비로소 동아시아는 집단보장체제 아래서 평화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조정 작업을 중앙정부에게만 맡겨서는 실현되기 힘들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주권국가만으로 평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방정부, 국제기관, 지역통합체, 개인 등이 결속함으로써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현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국가의 근저에 기술력과 장인정신, 성실함, 끈질김이 있는 한 과학기술 면에서 아시아의 리더 자리를 고수할 것이다. 이제 아시아를 하나의 마켓으로서 봐야 한다. 냉전구조 후 분화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통합이 중요해진다. 이번 회합에서 각 국가의 참가자들이 철저히 논의함으로써 결속이 생겨났고 그러한 힘이 바로 중앙정부를 움직여 가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Summary of Commemorative Lectures / 설립기념강연회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가능성과 그 조건」

대한민국 초대문화부장관, 동아시아지방정부회합 실행위원장, 나라현립대학교 명예학장 이어령



한중일 관계는 오래되었으나 각국이 아시아의 한 나라임을 의식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아시아’의 어원은 아시리아의 비문에 있는 asu(해가 뜬 나라)가 전와되어 assia로 되고 그것이 그리스에 전해져 해가 지는 서쪽을 의미하는 Europa에 대해 Asia가 되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요컨대 말 그 자체가 아시아 지역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는 서로가 타인으로서가 아닌 스스로가 아시아에 대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냉철하게 자기를 관찰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관계는 짝틀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심은 영어의 ‘interest’가 나타내듯이 쌍방의 사이(inter)에서 생겨난다. 그 관심의 대상이 정치권력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뿐이라면 분쟁이 생길 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는 기대할 수 없다.

바쇼는 죽기 직전에 ‘가을은 깊어 가는데 이웃은 무얼 하는 사람일까’라는 시를 읊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겨울의 추위를 앞두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생겨난 것인데 이것은 나라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번영의 여름은 지나 지금 일본은 세계불황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위기의 시대에는 혼자 힘으로는 살아 남을 수 없다. 이웃 나라에 몸과 마음을 기대는 외로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일찌기 번성했던 나라의 수도는 한중일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국제적인 활기로 넘쳐났다. 도다이지의 대불상에는 백제의 후예인 승려 교키가 있고, 호류지에는 돈초가 남긴 미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매화에서 벚꽃으로 옮겨 간 나라시대 이후의 일본은 대륙과 싸워 나라를 빼앗는 등 어두운 역사로 치달았던 적이 많았다.

지리적으로 봐도 중국은 대륙, 일본은 해양, 한국은 반도로 공통점은 없다. 그러나 이 3국이 하나의 동아시아의 문화를 구축해 온 것은 반도국가인 한국이 대륙국가인 중국과 해양국가인 일본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없었다면 양국은 정면충돌하여 큰 싸움을 벌였을 것이다. 대륙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대륙으로 문명의 전류가 흘렀을 때 한반도는 변전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면 쿠션 역할을 해 왔다.

문화적으로 한중일에는 공통점이 있고 같은 이상을 추구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기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서 재판관은 진짜 아이의 엄마를 알아내기 위해 아이를 둘로 자르라고 명하지만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있는 비슷한 이야기에서는 재판관은 양쪽에서 아이를 잡아 당기라고 명한다. 이것은 서양과 동양의 가치관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아시아의 문화공동체를 이루어 내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구절을 소개하면 ‘자세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 있네 울타리 밑에’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유의해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냉이의 생명력을 읊고 있다. 즉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문화의 파이프라인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각국을 대표하는 꽃이 아니라 작은 들꽃에 눈을 돌려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화공동체를 성공시키는 비결인 것이다. 또 3국은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일본의 젓가락은 생선을 먹기 위해 끝이 가늘고, 중국의 젓가락은 커다란 테이블의 요리를 덜어 먹으므로 길고, 한국의 젓가락은 국물요리가 많아서 숟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속제이다. 각각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치를 알면 서로의 차이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문화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테는 은행잎에서 아시아적 사상을 발견하고 시를 지었다. 은행잎이 두개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인 것에 신비성을 느끼고 두개로 보이는 것을 하나로 융합하는 지혜가 얼마나 동양적인 것인지를 느낀 것 같다. 피테가 본 것처럼 애매한 그레이 존이야말로 동양문화를 형성시켜 온 것이다. 보편주의에서는 동질성만을 추구하고 상대주의에서는 이질성만을 추구하게 되지만 동질을 전제로 한다면 이질을 느끼고 이질이기 때문에 동질을 느끼게 된다. ‘당나라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요시노의 벚꽃’이라는 하이쿠가 있는데 이것은 ‘동질적인 문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당나라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지배강제적인 발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하이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아시아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를 기원으로 하는 가위바위보도 동전던지기를 하는 서양과는 달리 단독 승리의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승부가 순환하는 상호보완형이다. 바로 음양의 동양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밤은 크지만 충해가 많다. 일본의 밤은 충해는 적으나 맛이 없다. 중국의 밤은 맛있지만 작다. 한국의 산림과학원은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맛있고 크고 충해에도 강한 새로운 밤 품종을 개발했다. 이와 같이 아시아 문화공동체도 3국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 나간다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축은 동아시아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